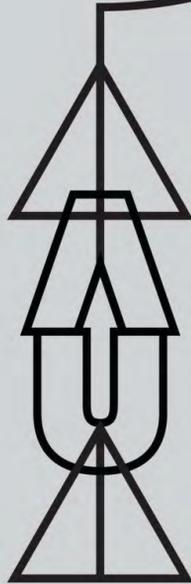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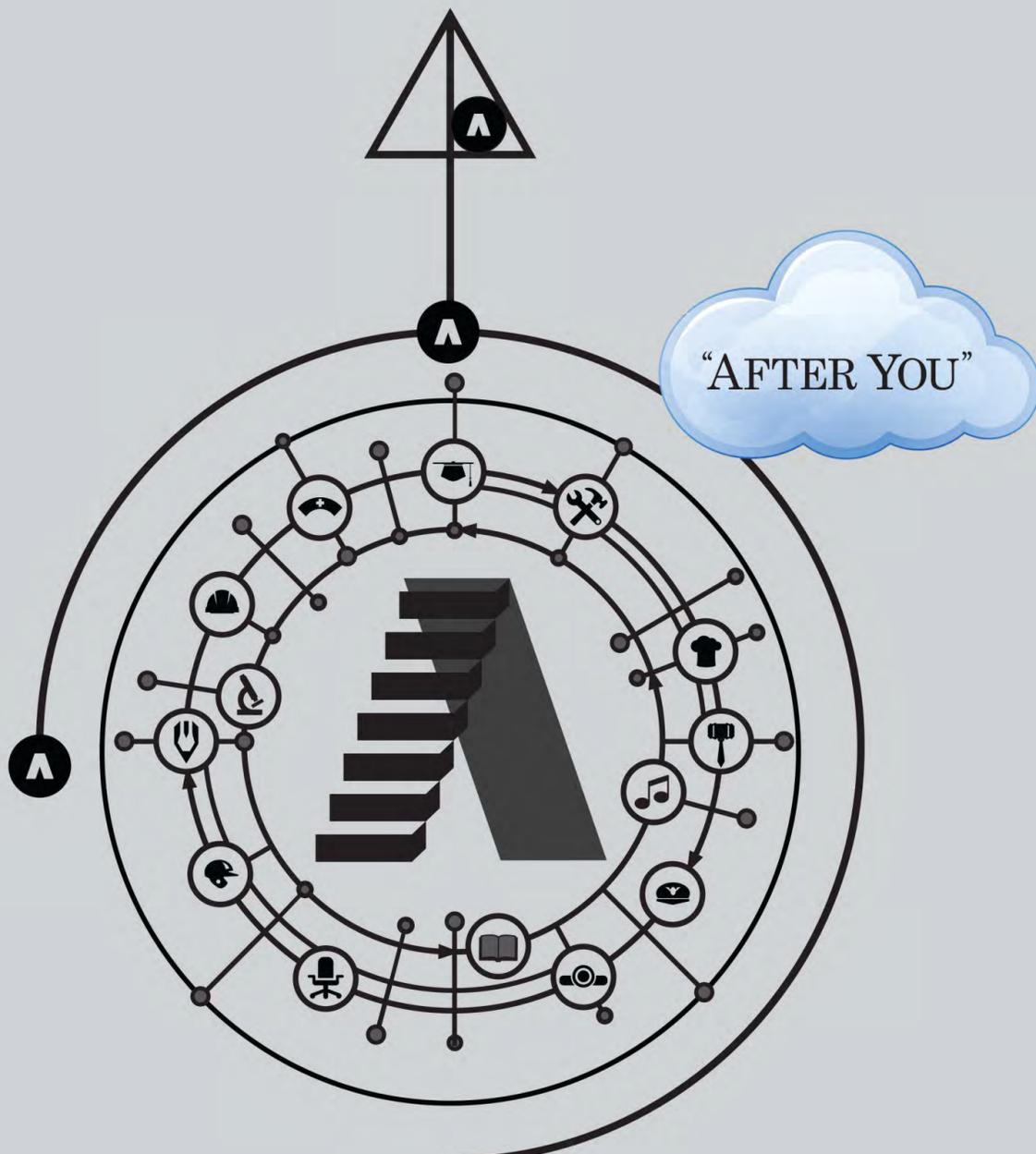


# AJOUINSIGHT.

봄여름가을겨울

DREAM HIGH THINK BIG ACT NOW



SPECIALAFTERYOU



**"AFTER YOU" 특집**

김동연 총장  
발의 기고문



**특별 기고**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희갑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주철환  
아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우석훈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특별 인터뷰**

이어령  
한중일문화연구소 이사장



**"AFTER YOU" 프로그램**

2015 여름  
글로벌캠퍼스 특집  
젊음의 Turning Point



**"AFTER YOU" 프로그램**

2015 여름  
글로벌캠퍼스 특집  
The Young Visions



**아주글로벌캠퍼스  
3개 대학교 격려 말씀**

미국 미시간대학교  
중국 상해교통대학교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AFTER YOU" 프로그램**

아주 희망SOS



**a word of editors** 미처 못 찾아올지 모를 영혼을 위해 달리던 말을 세웠다는 아메리카인디언들... 질주해 온 한국사회, 그 속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은 우리를 쫓아오고 있는 걸까. '남보다, 나부터'가 어디로 간 걸까? 생물학적 실존이기도 한 '남을 배려하는 나'는 어디로 간 걸까. '남을 생각하자, 남과 공감하자'는 사회 운동이 아닐지 모른다. 내 몸 안에 있었던 마음과

R E P O R T & R E C O R D



마이크로소프트사  
이미지캡 파이널리스트  
<JY6> TEAM



'유쾌한 반란'  
-글로벌인턴십  
BMW  
CKP  
KOTRA  
WORLD-OKTA



미디어학과  
3D 애니메이션  
<그린라이트>



해외 동문 메시지  
뉴욕/백우열 동문



What's next?



연구 뉴스



뉴스 / 아주가 최초, 최고!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지만,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도 동의한 걸까. 사람의 뇌에는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는 등의 활동전위세포, 미러시냅스(mirror neuron)가 존재한다고 한다. 영혼을 다시 담으려는 개체로서의 나와 한국인으로서 나의 분실물 찾기인지 모른다. 아주의 한 동문 시인은 이렇게 노래한 바 있다. "만나라, 사랑할 시간이 없다." AJOUINSIGHT.





몇 해 전 기획재정부 차관으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전교생이 21명인 강원도 시골의 어느 작은 중학교 교사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아무런 꿈도 희망도 갖지 못하는 학생들을 한번 만나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힘든 환경에서 자란 것을 언론을 통해 알았다며 학교 방문을 청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학교를 찾아 갔습니다. 각기 다른 책 21권에 학생들 이름을 하나하나 써서 주고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이제껏 만났던 누구보다 나이 어린 청중이었습니다. 무슨 말부터 할까 고민하다 학생들 나이의 제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쫓기듯 가야했던 무허가 판잣집. 그 집마저 철거된 뒤에 강제 이주되어 살았던 천막집. 그리고 집안형편 때문에 할 수 없이 진학했던 상업학교. 어린 나이에 시작했던 직장생활. 캄캄한 터널 속 같던 시절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젊은 시절 운 좋게 계층이동이 가능한 사회의 혜택을 받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랜 공직생활을 하면서, 또 대학에 와서도 그런 ‘운’이 잘 주어지지 않는 현실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경제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에 대해 여러 고민을 하면서도 특히 이 문제에 신경을 많이 쓴 까닭은 계층이동이 원활한 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사회라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회적 이동성(social mobility)’ 문제가 말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킹 핀(king pin) 중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어느 자리에 있든, 제가 있는 그곳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늘 했습니다.

“에프터유” 프로그램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어려운 학생들을 시혜적으로 도와주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우리 아주대에서부터 놓자는 취지였습니다.

# 도전과 배려... 아주의 울타리를 넘어

주의를 집중하기 어려운 나이 대의 학생들이 1시간 반 동안의 긴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습니다. 세 가지를 특히 강조했습니다. 허황될 정도로 높은 꿈을 가지라고. 눈 먼 열정을 가져야 한다고. 어린 시절의 어려움은 ‘위장된 축복’이라고. 학생들 뿐 아니라 함께 자리했던 교사들 대부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나와 차에 오르자마자 제 어깨를 짓누르는 ‘어떤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 학생들이 꿈과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과연 뭔가 되는 것일까.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게임의 룰은 공정한 걸까. 과거와 달리 우리 교육이 오히려 부(富)와 사회적 신분을 대물림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리고 그 취지가 아주대의 울타리를 넘어 사회로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타 대학 학생을 포함시킨 것도, 금액에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는 것이 소중하다고 반복해서 이야기한 것도 그런 취지입니다.



DREAM HIGH THINK BIG ACT NOW

가장 놀랐던 것은 선발된 학생들이 떠나기도 전에 이미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학생 선발, 멘토링, 사전 교육 과정에 참여했던 교수와 직원들은 추가 업무 부담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곳곳에서 학생들에게서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멘토링에 참여한 기부자들은 자기가 오히려 힐링이 됐다고 했습니다. 계층이동 운동이 우리 사회에 보다 확산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하게 됐다는 기부자도 여러 분 보았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지원했던 학생들도 이런 기회 자체에 고마워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꿈과 도전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멘토링에 직접 참여하면서 저는 학생들에게 어학공부나 문화 체험을 넘는 도전을 강조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실력이 늘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빛이 달라져서 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하고 싶은 일을 찾기 위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의 눈빛이고, 다른 하나는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눈빛입니다. 이런 것들은 강의실 안이나 책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몸으로 부딪치며 경험으로 깨닫는 것 같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가치관에 속하는 것이고, 내적으로 체화(體化)되어야 자기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매력(魅力)'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주대 학생들은 실력과 함께 이런 매력을 갖춘 젊은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여름방학 동안에 모든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많은 땀을 흘렸습니다. 방학 중임에도 많은 교수분들과 십여 차례 이상 열린 토론회를 가졌고 학생, 직원, 동문들까지도 힘을 더해 주었습니다. 유난했던 폭염까지 감안한다면 더더욱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기회였습니다. 우리 구성원들의 잠재력과 학교발전에 대한 열망에 더해 '우리도 한번 해보자'는 투지를 일깨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프터유" 프로그램은 이와 같은 발전방안 마련 작업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었습니다. "에프터유" 프로그램은 구성원들의 생각을 모으는 기획단계, 뽄뽄 뽄뽄 강한 추진력을 보여준 실행단계, 그리고 우리 사회에 강한 확산의 메시지를 주는 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학교 발전방안도 같다는 생각입니다. 지난 여름 우리가 땀 흘려 고민한 것은 아주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구성원의 생각을 모으는 단계였습니다. 앞으로 더 구체적인 고민을 필요로 하지만, 우리 구성원들의 의견이 모아진 뒤에는 모두가 뽄뽄 뽄뽄 각자가 숭선해 하는 실행 단계가 필요합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발전과 변화는 아주대만을 위한 것을 뛰어 넘어, 대학교육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우리가 선도하는 모양이 되어야 합니다. '대학을 바꾼 대학'이라는 과거 우리의 명성에 걸맞게 '대학을 바꾸는 대학'이 되어야 합니다.

## '계층이동' 문제... 사회가 젊은이들에게 풀어 주어야 할 숙제

### 용기와 배려 갖춘 실력과 매력의 젊음되어야

### "AFTER YOU" 정신과 "ME FIRST" 자세로 실천해 갈 터

일에 임하는 정신과 자세에서도 "에프터유" 프로그램과 발전방안의 실천은 궤(軌)를 같이 합니다. 시작 첫 해임에도 "에프터유"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것은 우리 구성원들이 '당신 먼저(After You)'의 철학을 갖고 '내가 먼저(Me First)' 실천하는 자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학교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의 마련과 실천도 같습니다. 지난 여름 많은 토론을 하면서도 '내가 먼저'란 정신과 자세로 임했기에 힘은 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실천이 뒷받침 되지 않는 계획은 아예 세우지 않는 것만 못합니다. 이제껏 우리가 잘 해왔던 것처럼 '내가 먼저'란 정신으로 모두가 힘을 합친다면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강원도 그 작은 중학교는 첫 번째 방문 이후에 네 번을 더 갔습니다. 볼 때마다 학생들이 조금씩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표정이 밝아졌고 씩씩해졌습니다. 처음 만났던 학생들 대부분이 고등학교에 진학했지만 제가 간다면 몸담은 고등학교의 양해를 얻어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진정성과 변함 없는 마음으로 대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할 일도 그렇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가 사심(私心) 없는 '진정성'과 꾸준한 '일관성'을 가지고 한다면 아주대와 우리 나라 대학교육의 발전을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자는 다짐을 저부터 다시 한번 해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아주대학교 교수 **오동석**

‘계층 (상승) 사다리’는 한국 사회에서 요즘 들어  
부쩍 심심찮게 들 수 있는 화두이다. 예를 들면,  
2017년 폐지 예정시험을 유지하자는 주장  
의 주요 논거이다. 이 말이 불편한 까닭은 로스쿨

# 상생과 공생을 위한 사다리에서 사다리 필요없는 사회까지

제도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문제  
의 핵심은 계층의 ‘사다리’가 아니라 사다리를 마련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계층’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과거 소수의 합격자만을 냈던 사법시험은 출세의  
상징이었다. 특권적인 사회적 지위나 수입을 보장  
하는 동아줄이었다. 그것은 법조 직업의 과점 보장  
그리고 사법연수원을 통해 맺어진 법조삼륜, 즉 판사  
와 검사 그리고 변호사의 끈끈한 동업자 관계 때문에  
가능했다. 합격 정원을 정해서 뽑을 게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이들에게 변호사 자격을 주는 시험  
으로 사법시험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법조인들 또는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은 이를 반대했다.  
좁은 사다리는 특권 유지의 필수조건이었다. 로스쿨  
의 입학정원과 변호사시험 합격인원을 최소화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사법시험 존치 주장은 사다리가 하나  
더 있다는 착시효과를 노릴 뿐이다. 정말 계층 상승의  
사다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방송통신대학교에  
로스쿨을 설치하여 저렴한 수업료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게 하자는 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것이 완화되기는커녕 점점 심화되고 있다. 사회적  
이동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개별 프로그램을 반대  
할 까닭이 없다. 그것을 지지하는 것에 인색할 일이  
아니다.  
아주대학교 “에프터유”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다. 이 프로그램은 취약 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연수 프로그램이다. 학점이나 영어 성적이 아니라  
‘꿈과 열정 계획서’ 심사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선발  
한다. 아주대학교 학생만이 아니라 인근 지역의 대학생  
들에게도 열려 있다.  
그런데 포스터에 “그 친구를 보내자!” 라고 적었지만,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타천보다 자원이 많은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도 그렇다고 한다.  
그렇다면 제한된 인원을 선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인  
지 몰라도, 왜 “친구야 함께 가자!” 라고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AFTER YOU’ 보다 ‘WITH YOU’ 가 더

낮지 않을까? 무한경쟁 사회는 계층화를 당연시하는  
것을 넘어 계층의 서열화를 지지한다. 현상적으로 드러  
난 성과주의에 근거하여 나는 다르게 처우를 받아야  
한다고 강변하기 일쑤다. ‘나 혼자’ 또는 ‘너 혼자’ 아닌  
또한 ‘무작정 우리’가 아닌 ‘남과 함께’ 를 배우는 일  
이 중요하다.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함께 잘 사는 일’이다. 주권  
자 국민은 서로에게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  
보장 약속을 했다. 국가가 이행해야 할 헌법적 책무 중  
하나이다. 자본가가 노동자에 대해서, 대기업이 중소  
기업에 대해서, 사회적 권력 있는 자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준수해야 할 헌법적 의무이기도 하다. 계층 간  
거리가 날로 멀어지는 상황은 한 사회의 기본적인 목표  
와 가치가 흔들리고 있음을 자백한다. 계층 상승의 사  
다리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희망이 되기 어렵다. 지금  
사회의 근본적인 틀을 다시 짜야 할 때다. 희망의 사  
다리는 환상이다. 치열한 경쟁논리에 갇힌 한 칸짜리  
사다리가 아니라 계층 간 거리를 줄이기 위한 해법을  
함께 고민할 일이다.

그렇다면 “에프터유” 프로그램이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시작하자. 아무리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좋은 학점을 받아도, 현재 상황에서는  
정규직 노동자가 되기 어렵고 안정적 삶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진실을 말하자. 그러나 절망하지는 말자고,  
혼자가 아니라 서로 다독이자. 어떻게 지혜와 힘을  
모아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 협동하고  
연대하는 경험을 쌓아가자고 격려하자.

“에프터유” 프로그램은 씨앗이다. 이 프로그램을 지지  
하는 이유다. 학교 내의 다른 프로그램이나 제도의 개선  
으로 이어져야 이 프로그램은 더욱 빛날 것이다. 입학  
전형, 장학금, 기숙사 등에서도 ‘에프터유 가치’ 를 구현  
할 길을 찾을 수 있다.

##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은 ‘남과 함께’다

## 인간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은 국민 간 약속

## 잘 이행되는 지와 그 책무는 국가가 져야 한다

교내에서 비정규직 교직원과 파견고용 문제 등에서 누군  
가의 희망의 사다리를 건너차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볼 일  
이다. 다른 학교도 다 그렇다는 변명은 하지 말자. 대학  
에서도 신자유주의 자본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경쟁’ 상태가 된 관계에서 인권과 민주주의  
가 작동하지 않는다. 함께 성장하고 연구하며 실천하는  
힘을 상실했다. 사회구조의 관점을 잊은 채 ‘내 탓이오’  
또는 ‘나만 잘하면’ 을 강요당하고 있다.

대학은 인권을 존중하고 평등하며 민주적인 관계를 맺는  
공간이어야 한다. 학생들은 민주주의의 환경에서 생활  
함으로써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삶 그 자체로서 민주주의  
를 체험해야 한다. 그것은 사회에 나가 정치·경제·  
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존엄과 민주주의  
를 구현하기 위해 용기 내어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다.  
더욱이 ‘에프터유 정신’은 대학의 사회적 구실이 무엇  
인지를 성찰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역 사회에  
대해서도 재정적 후원을 받기 위한 목적대상으로 접근  
해서는 곤란하다. 지역 주민들에게 좀 더 대학의 공간과  
시설을 개방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교직원과  
학생들이 어떻게 지역 사회에서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어내야 한다.

대학 본연의 존재 목적이 사라지고 기업과 국가의 요청  
에 맹목적으로 순응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모든  
대학들이 공공성이 검증되지 않은 언론사의 평가를 잘  
받기 위해 목을 매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의 구조를 강제  
적으로 개편하려 한다. 대학에서 학문의 다양성을 경시  
하고 학내 구성원의 자율적 의사를 무시한다. 사회적  
비판의 공기(公氣)로서 대학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민주공화국으로서의 국가 정체성까지 흐려지고 있는  
형편이다. 국가는 국민에 대해 국가 상징물에 대한  
충성까지 강요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평등사회가 아니라 봉건적인 신분사회로 퇴행하고  
있다. 고가 사다리를 만들 수 없을 뿐 아니라 설령  
그것을 만든다 해도 그것이 계층 간 격차를 줄이는  
해법이 될 수는 없다.

“에프터유” 프로그램으로써 희망의 사다리 한 칸을 놓으  
려는 노력을 지지한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이 값진 수고  
가 되려면, 그 자체를 종착점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에  
프터유 가치’ 를 구현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상생과 공생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회용 사다리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다리가 요청된다. 굳이 별다른 사  
다리가 필요없는 사회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이 계층을 뛰어넘어 자유  
롭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대학교육의 생태계를 조성  
해야 한다. 그래야 아주대학교에서 배운 사람들이 직접  
체험한 평등한 민주주의를 사회로 확장하는 씨앗 역할  
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로서 한국 사회에서 ‘AFTER YOU, WITH YOU’  
의 가치가 활짝 꽃피우기를 고대한다. AJJOINSIGHT.



For social mobility of  
cohabitation and symbiosis

DREAM HIGH THINK BIG ACT NOW

왜 개천에서 용이 나와 하나?

우리나라 교육과 관련하여 가장 널리 사용되는 속담 하면 "개천에서 용난다" 를 들 수 있겠다. 오늘도 신문 을 펼치면 개천에서 용이 나기 위해서는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법고시, 입학사정관제, 그리고 교육 평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마주할 수 있다. 아쉽게도 요즘이 속담이 수난을 받고 있다. '옛말', '해묵은 고사',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 는 그나마 예의 바른 표현이다. '천만의 말씀' 부터 '개천이 사라진지 오래다', '사전에서 없애야 한다' 까지 험담도 만만치 않다. 부모의 교육 · 소득 수준 이 자녀의 고등학교 · 대학교 진학과 임금 수준에 영향 을 미치고, 상위대학 신입생 중 특정 지역과 특목고 출신 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그 때마다 이런 험담이 오가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회적 이동성은 국제적으로는 아직 양호한 편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사회 이동성 이란 일반적으로 불리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자가 자신의 처지를 개선할 수 있는 강도, 즉 개천에서 용이 나는 강도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중등학교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편이다. 무엇이 진실일까? 하지만 필자의 호기심은 다소 엉뚱한 데 있다. 왜 우리는 개천 에서 용이 나기를 바라는 것일까? 또 그렇지 못한 사회 를 왜 안타까워하고 절망하는 것일까? 자기 앞가림에 바쁜 각자도생의 자본주의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아닌가? 개천에서 난 용이 높이 비상하든 여의주를 품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던 말인가? 더욱이 다른 이의 입신 양명이나 등용(登龍)을 즐거워할 만큼 여유롭지 못한 게 지금의 우리의 삶 아닌가?

개천에서도 용이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개천에서 용이 나와 마땅한 이유는 의외로 다양 하다. 우선 자본주의의 파수대를 자처하는 경제학 교과서 를 들춰보자. 경제학자들은 교육의 다양한 기능 중 외부 효과에 주목한다. 한 개인의 교육성취가 주는 혜택이 그 개인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똑똑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배우는 것도 있고 또 은근히 경쟁심도 유발 한다. 좀 살벌한 예이지만 역사학자 토인비(Arnold J. Toynbee)가 늘 인용했던 메기효과(catfish effect)가 이 를 잘 보여준다. 냉장기술이 없던 시절에 청어를 멀리 건강하게 운송하기 위해 천적인 메기를 한두 마리 끼워 넣었던 어부의 일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청어들은 메기 를 피해 살아남으려 애쓰게 되는데, 그로 말미암아 건강 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한다. 교육받은 근로자가 주변에 많을수록 새로운 기술이 전파 · 수용 · 확산되기 쉽고, 범죄와 사회적 혼란이 감소하고 또 민주적 시민 이 늘어난다. 건강한 사회가 지속되는 것이다. 경제적 이득이 개인에게 제한되지 않고 사회에까지 미친다면 개천에서 더 많은 용이 나오도록 도와야 한다. 사회적 정의 나 공평성이 아니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천의 용들이 필요하다. 개천의 용들이 때론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며 새로운 시대를 창조해내기에 사회적 가치가 더 더욱 빛이 난다. 영국이 역사상 최초의 산업혁명을 이끌 어낸 과정도 토지시장과 대서양 무역을 통해 성장한 자본가들이 정치경제 질서를 재편하면서 격화되었다. 동양에서 최초로 일본이 산업혁명을 주도한 것 역시 서남 지역의 조슈 · 사쓰마 · 도사 · 히젠 번이 유력하게 존재하였고 더 나아가 이들이 군사적 재능이나 학식으로 인정을 받았던 하급 사무라이 출신들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역사만 하더라도 그렇다. 신라에서 고려 로의 이행은 지방의 유력 호족들과 학식 있는 육두품 세력이 있었기에, 그리고 고려에서 조선으로의 이행 은 신흥무인 세력과 신유학으로 무장한 신흥사대부를 배경으로 한다. 조선 말국의 비극은 막부가내인 제국 주의에 상당부분 기인하지만, 당시 우리에게 개천의 용들이 너무도 적었음도 알 수 있다.

사회적 정의와 공평성이 아니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개천의 용들 필요

자본주의 선진국인 유럽과 미국에서 정부의 역할이 초중등교육 뿐만 아니라 대학교육에서도 부각되는 이유다



복잡계 과학(complex science)도 혁신에 목말라 하는 한국경제에 왜 개천의 용들이 필요한 지 말해준다. 복잡계(complex system)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존재 하고 또 이들 개체들이 다양하게 연결되어 상호작용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구성원 수도 많고 이들 구성원 들이 수 많은 방식으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시스템 전체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어서 복잡 시스템, 즉 복잡계라 불리는 것이다. 복잡계를 행태가 예측가능한 단순계로 만드는 방법은 쉽다. 개체의 다양성을 줄이고, 더 나아가 상호작용도 축소시키면 된다. 회사를 같은 학교 출신들로 채우고 중앙집권적 으로 관리하면 의외의 일들은 생겨나지 않는다. 동창회나 향우회의 정겨움만으로 미래를 약속할 수는 없다. 임직원을 다양한 학교 출신들 또 다양한 학력층 으로 채우고 분권적으로 협력하는 방식으로 의사결정 을 하게 하면 의외의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 교육받은 바도 다르고, 만나는 사람도 다르고, 또 살아가는 방식

03

경제학과  
아주대학교 교수 최희갑

첫째, 부모세대에서 계층이나 소득의 차가 크지 않게 하는 산업 정책과 둘째, 부모세대에서의 격차가 자식의 교육과 직업 기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교육정책이 그것이다. 소득의 강제배분을 배제한다

혁신에 목마르다면 다양한 개천의 용들이 필요하다

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면 의외의 일들은 불가피한 것이다. 그래서 혁신도 불가피한 것이다. 한 사회가 혁신 에 목말라 있다면 무엇보다도 다양한 개천의 용들이 필요하다. 공평이나 정의를 따지기에 앞서 사회의 보다 큰 이익을 위해 개천을 보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다.

개천에서 용이 나게 하려면?

사회이동성은 개천에서 용이 날 가능성 또는 자식이 부모보다 더 높은 사회적 성취를 달성할 가능성 (절대적 사회이동성)을 말한다. 하지만 이 정의는 정책을 펴기에 너무 추상적이다. 그래서 사회적 이동성을 자식의 기회가 부모의 계층이나 소득에 의존하지 않는 정도(상 대적 사회이동성)로 정의하기도 한다. 이 정의를 따를 경우 사회이동성 강화 정책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먼 사회이동성을 높이는 산업정책은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기업이 쉽게 생겨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기업이 제조업에서건 서비스업에서건 전방위적 으로 철용성을 내달리 확대하고 있는 우리 경제에서 는 쉽지 않은 정책이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좀 더 현실적인 교육정책에 쏠린다. 교육기회는 어떻게 평등 화해야 하는 것일까? 교육학자나 경제학자 모두 공감 하는 교육정책이 있다면 그것은 중고등 교육보다 는 초등교육 또는 그 이전단계에 이루어지는 정부 개입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조기개입이 뇌의 인지 능력 발전에 효과적이고 또 그로 말미암은 누적 효과 도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인지능력에 대한 비인지 능력(시간관리, 팀워크, 리더십, 자기 지각과 자기통제, 다중 작업 기능)은 후기개입이 더 효과적 이라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조기 개입이 후기개입으로 뒷받침될 경우 조기개입이 더 생산적 이 된다는 점도 밝히고 있다. 아울러 대학 진학 등 결정적 순간에 개입이 이루어질 경우 교육성과에 효과적이라는 결과도 있다. 결론적으로 개천에서 용 이 나기 위해서는 전연령대에 걸쳐 고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 자본주의 선진국인 유럽과 미국에서 정부의 역할이 초중등 교육뿐만 아니라 대학교육에서도 부각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인 것이다. 더 많은 개천의 용들이 필요한 한국경제의 상황은 두 말할 나위도 필요 없는 것이다. AJOUNSIGHT.



Need for more heroes, if desperate for innovation



# 04

문화콘텐츠학과  
아주대학교 교수 **주철환**

“지금 여기 왜 앉아 있는 거죠?” 수업 도중에 느닷 없이 교수로부터 이런 공격을 당한다면 어떨까요? 적잖이 당황할 겁니다. “내가 뭘 잘못된 거지? 수업료도 제 때 내고 수강신청도 제대로 했는데.” 그러나 교수 입장에선 이따금 묻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꾸벅꾸벅 조는 학생을 깨우려는 게 아닙니다. 눈을 뜨고 있지만 눈빛은 초점을 잃은 채로

단순히 지식전수의 장으로 주저앉은 캠퍼스. 오로지 학점의 노예가 되어버린 삭막한 교실. 그곳에 인간의 온기와 향기를 되살려보고 싶어서입니다. 국가경제를 감안해서라도 오늘날의 대학풍경은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영화 한편 보는 데는 만 원이 채 안 듭니다. 두 시간짜리 영화라면 한 시간에 5,000원도 안 드는 셈이죠. 그런데 대학에서 수업 한 시간 듣는 데 얼마를 지불합니까?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을 내고 교실에 들어온 겁니다. 더구나 그 교실에 들어와 앉기까지 치른 입시전쟁은 또 얼마나 살벌했습니까?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가까스로 차지한 의자에서 아무런 방향성 없이 관성적으로 시간을 흘러 보낸다면 얼마나 한심하고 억울한 일입니까?

관성에서 감성으로, 타성에서 지성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잠시 손을 떼고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지금 여기 왜 앉아 있지?” 설레는 미래가 없다면 딱딱한 의자에 앉아 젊음의 시간을 허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대가 바라는 미래와 그대가 바라보는 현실은 연결이 가능합니까? “경쟁에서

저는 ‘인연이 모여 인생이 된다’ 라는 제목으로 얇은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좋은 인연을 쌓는 것이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비결이라는 경험담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책의 부제는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는 법’ 입니다.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려면 어떤 말이 가장 효율적일까요? 아마도 에프터유가 아닐까요? 에프터유는 ‘따지는’ 말이 아니라 ‘다지는’ 말입니다.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 말입니다.

그 몇 해 전에는 ‘더 좋은 날들은 지금부터다’ 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다’ 가 아니고 ‘지금부터 다’ 입니다. ‘더’(more)보다는 ‘다’(all)를 강조한 겁니다. 저는 이것을 ‘더다이즘’ 이라고 이름붙였습니다. 더 잘 살고 다 잘 사는 세상을 차근차근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더 잘 사는 걸 싫어할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누구는 더 잘 살고 누구는 상대적으로 더 못 사는 게 미리 정해져있다면 그건 희망 있는 세상의 모습이 아닐 겁니다. 더불어 잘 살아야 진짜로 좋은 세상입니다.

쉽지 않은 목표인 걸 알기에 제가 찾아낸 소박한 대안은 이른바 ‘친구 만나기, 친구 만들기’였습니다. 돈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건 돈 많은 집안의 되풀이 되는 다름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잘 사는 건 사이 좋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친구라는 단어가 이익을 나누는 사이처럼 바뀌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얻을 게 없으면 친구가 아닌 것처럼 되는 비정한 모습들에 익숙해져왔습니다. 어깨동무라는 말은 구닥다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모름지기 상 받은 사람 옆에는 상처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상 받은 사람에게 보내는 박수만큼 상처 받은 사람의 무너진 어깨도 어루만져주는 게 인간의 도리 아닐까요? 아주대학교에서 시작한 “에프터유” 프로그램은 ‘더 잘사는 세상’ 과 ‘다 잘사는 세상’ 이 조화를 이루는 황금의 주문입니다. 무엇보다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공생프로젝트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실엔 친구가 없고 경쟁자만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 되면 내가 잘 안 된다는 생각이 교실을 천국보다 지옥 가까이에 갖다놓고 말았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살아서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곳입니다. 감사와 봉사가 넘치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천국 아닐까요? AJJOINSIGHT.

## 더 나은 세상을 지금부터... 다!

그냥 자리를 채우고 앉아 시간을 때우는 제자가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지금 거기 왜 서 계신 거죠?” 수업 도중에 교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은 학생도 아마 있을 겁니다. 학생의 반응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기계처럼 지식을 쏟아내는 교수, 정감은커녕 아무런 영감도 얻지 못하는 수업을 습관처럼 반다보면 ‘내가 왜 여기 앉아서 로봇 역할을 하는 거지?’ 하는 갑갑함이 엄습해올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혼자 명상에 잠기거나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것이 자신의 삶에 더 유익할 거라는 판단이 드는 적도 없지 않을 겁니다.

불운한 상상으로 가파른 두 개의 장면을 끄집어낸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겨라.” “어떡하든 취직 해라.”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쟁취한 직장이 과연 그대에게 얼마나 행복을 가져다줄까요?

핵심은 언제나 초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대에게 주어진 시간과 그대를 둘러싼 인간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제 그대의 생각을 편집하십시오. 교실은 학생과 교수만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스승과 제자가 있는 공간입니다. 또 하나, 거기엔 함께 길을 걷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오로지 나 하나의 안정된 미래를 위해 대학을 다닌다면 교실은 점점 황폐해지고 청춘은 경쟁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겁니다.

저의 소중한 일터이자 배움터인 아주대학교에서는 언제부터인가 ‘유쾌한 반란’ 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목은 상급제도 프로그램이 허술한 경우가 더러 있는데 아주대의 반란은 글자 그대로 상쾌하게 순항 중입니다. 연출자의 경험으로 볼 때 프로그램이 성공하려면 재능과 열정뿐 아니라 시간과 돈이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눈먼 돈도 많지만 시퍼렇게 눈뜬 돈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취지에 공감한 사람들이 지갑을 열기 시작했고 사라진 듯 보였던 우정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는 봉사의 드라마가 시작된 겁니다.



From now, a better world starts



### 상 받은 사람들 옆의 상처받은 사람을 생각하라

### “AFTER YOU” 더 잘 사는 세상과 다 잘 사는 세상 조화 이루는 황금의 주문되어야

# 가난한 학생들이 편의점 알바로 몰리고 몰려 워킹홀리데이 가는 것 안돼

# 공적, 사회적 방식으로 가난한 대학생들에게도 경험치 늘려주어야



가까운 인천 같은 데를 제외하면 서울 바깥에 나가본 것이 대학에 들어가서였다. 대학교 1학년 여름 MT 때, 정말로 해수욕장이라는 곳을 처음 가봤다. 여행은 커녕, 식당에 가서 밥 먹는 것도 그렇게 자주 기억에 나지 않는다. 그 시절에는 나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대부분 그랬다. 우리 집은 아주 가난한 집은 아니었다. 그래도 여행가고 식당가고, 그럴 형편까지는 안 되었다. 자기 집이 있고, 세기 밥 먹을 걱정 없는... 그 정도면 나름 유복한 집안이었다는 기억인데, 여행까지는 가보지 못했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여행이라면, 대학교 1학년 겨울 방학때 떠난 도보여행이었을 것이다. 여러가지로 심난하고 생각도 정리되지 않던 그 시절, 나는 식발을 하고 1986년 크리스마스 이브, 고속버스를 타고 여행을 시작했다. 강릉에서 속초까지, 국도를 따라 걸었다. 별로 특별히 가야할 데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었다. 그냥 걸었다. 잠은 농가의 빈집에서 그냥 잤다. 시골에 가면 이래저래 사람이 떠나고 없는 빈집이 꽤 있다는 것을 그 때 처음 알았다. 그 도보여행을 갔다온 이후, 난 내 삶을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어떤 선택이든, 누가 대신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 다음 해, 대학교 3학년에 올라오면서 난 집을 나왔다. 그 후로 아주 오랫동안 가난했고, 주머니에는 늘 돈이 별로 없었다.

비행기를 타본 것은 프랑스로 공부하러 갈 때였다. 흔한 제주도에도 한 번 간 적이 없었으니, 그게 첫 비행기였다. 배낭에 책 몇 권 넣고, 그렇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떠났다. 네 살인 큰아들은 돌이 되기도 전에 어린이 생겼고, 벌써 몇 번을 해외에 갔다 왔다. 나의 아들과 내 삶은 이미 꽤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세상이, 약간은 변했다.

20대 초반, 난 진짜로 서울 혼놈이었고, 세상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몰랐다. 그 시절, 나는 대학원에 입학하는 절차도 제대로 모르고 파리에 갔다.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었다. 프랑스 대사관과 문화원을 통해서 내가 알아본 절차들은 이미 옛날 얘기였다. 입학 시험이 있다는 것도 나중에 알았다. 우여곡절 끝에 겨우겨우 대학원 입학시험을 통과했다. 꼴찌라도 통과하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꼴찌는 아니었던 것 같다.

그렇게 대학원에 들어간 첫날이었다. 당연하겠지만, 수업 내용에 노트 필기를 할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노트 좀 빌리자고 그렇게 유창하게 물어보 부탁할 상황도 아니니까 그야말로 대략난감. 수업이 끝나고 도서관에 갔다. 경제학 책만 따로 모아놓은 경제학실이 있었는데, 마침 같이 수업을 들었던 어떤 여학생이 있었다. 어떻게 부탁을 할까, 한 시간 가까이 냉기습을 앞으면서 고민을 했다. 고민고민 끝에, 그냥 안면 불수, 부탁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주춤주춤, 경제학과 대학원에 처음 오게 되었는데, 외국인이라서...

"Moi, aussi."  
아주 반가운 표정으로 자기도 외국인이라고 그 여학생이 말을 했다. 이런, 망했다! 당시 내가 프랑스 여학생과 독일 여학생을 무슨 수로 구분은 했겠는가. 나중에 보니, 수업 첫날부터 도서관에 와서 공부하던 사람들은 거의 다 외국인들이었다. 그렇게 계기가 되어서 대학원 시절에 외국인 유학생들과 정말 친하게 지냈고, 아주 즐거운 기억을 가지게 되었다. 처음 얘기했던 독일 여학생과 그리스 친구들, 여기에 일본인 여학생 등 몇 명이 아주 친하게 지냈다. 당시 외국인 중에서 몇 명은 아주 예뻐고, 그 중에 가장 예뻐던 몇 명은 그 학기가 끝나기 전에 프랑스 학생과 동거를 하게 되었다. 학기가 끝나도록 동거할 파트너를 구하지 못한 학생은 나와 일본인 여학생, 그리고 또 약간 명, 그 정도였다. 그 과정에서 아주 우수하게 잘 정리된 노트를 프랑스 남학생들이 복사해서 갔다 주었고, 학기말 고사를 볼 즈음에는 나도 몇 개 버전의 노트

# 05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우석훈**  
경제학 박사

격차를 벌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은 것은 아니다. 무슨 대단한 공평성을 만들자는 건 아니더라도, 좀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고, 문화적으로도 풍성하고 국제적으로도 풍성한 사람을 만드는 것, 이런 게 좀 더 공평한 방식으로 진행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한다.

# 동아시아의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이 되길 바라며...

를 가지고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대학원을 1년만에 졸업했다.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다. 우정과 환대 그리고 연애, 이런 것들이 섞이면서 프랑스의 경제 전문가들 그리고 유럽의 경제 전문가들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렇게 많은 외국인 대학원생들과 같이 공부할 수 있게 해준 프로그램이 바로 에라스무스이다. 네덜란드의 대학자 에라스무스의 이름을 딴 유럽의 학생들 통합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럽 전역의 학생들이 모여들게 된 것이다. 유럽에 대해서 이것저것 부러운 게 있지만, 내가 경험해본 에라스무스는 정말로 부러운 제도였다.

당시에도 유럽이 앞서가는 나라였지만, 그 내부에서 그렇게 강력한 학문적 지원 기능이 있어서 이 격차가 우리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좀 했었다. 우리는 이걸 공적인 시스템으로 아직도 처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연수를 떠나거나 유학을 가게 된다. 그만큼 한국 증산층들의 허리가 휘게 된다.

이런 상상을 종종 해왔다. 마치 유럽이 역내 국가들 끼리 그렇게 하는 것처럼, 최소한 한중일 내에서만이라도 이런 교육 공유 프로그램을 강화시키는 것, 그게 그렇게 어려울까 싶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한중일의 장기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에도 기여할 것 같았다.

이 내용들이 줄져 <촌놈들의 제국주의(2008년)>에서 한중일의 장기적 평화를 위한 제도의 일환으로 제안했던 내용이다. 동아시아 버전의 에라스무스 같은 것이 생겨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직도 한다. 대학 과정에서의 교환 프로그램, 이런 개인에게도 분명히 도움이 되고, 전체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내용이다. 문제는 돈이 든다는 것... 돈이 교육을 만들고, 그 교육이 다시 돈을 만들어서 점점 더

가난한 학생들이 편의점 알바로 내몰리고, 몰리고 몰려 워킹홀리데이 같은 것으로 가는 것, 이런 좀이라는 생각을 종종 한다. 조금 더 공적이고 사회적인 방식으로 가난한 대학생들에게도 경험치를 늘려주는 것, 이런 방향으로 더 많은 고민을 하면 좋겠다. AJOUINSIGHT.



High hopes for an East Asian  
Erasmus Programme



# 06

SPECIAL INTERVIEW

# 이어령

**한중일 비교문화연구소 이사장**

1934년 출생.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석학(碩學).  
 평론가에서 언론인, 교수, 그리고 문화부 장관까지  
 많은 영역에서 활약해 온 그는 놀라운  
 '크리에이터'다.  
 끝없는 호기심과 창조성으로 폭넓은 저작 활동과  
 강연을 정열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  
**함께  
 울 줄 아는  
 공감,  
 빛나는  
 지성,  
 아래로  
 부터의  
 아이디어로**  
 ”

DREAM HIGH THINK BIG ACT NOW



With sympathy, intellect, and ideas from below

우리 대학교는 김동연 총장의 주창으로 사회적 이동성(Social Mobility)을 뿌리로 한 “애프터유”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두 단어를 관통하는 단어가 ‘배려(配慮)’라 여겨지고, 배려의 ‘려’에는 생각 ‘사(思)’가 있습니다. 언어적·사회적 가치로서 “애프터유” 운동이 고려(考慮)해야 할, 혹은 지향해야 할 가치를 짚어주십시오.

꽤 오래 전 영국에 초청받아 간 적이 있어요. 아침식사 하려고 호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는데 한국에서 하던 대로 문이 열리자마자 뛰어나갔어요. 그런데 함께 탔던 사람들이 얼른 길을 터주고 양보하는 거예요. 급한 일이 생겼나보다고 생각한 겁니다. ‘아차’ 싶었지만 걸음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계속 앞으로 돌진해 갔어요. 만약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엘리베이터에 탔던 사람들이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했을까요? 결국 숨어있다가 그들이 다 사라진 뒤에야 나왔어요. 내가 “애프터유” 운동의 요람인 아주대학에 다녔었다면 그런 일은 없었겠지요.

사회적 습관이나 도덕의 기반에는 ‘문화 유전자’라는 게 있어요.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유전자가 아니라 교육에 의해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도킨스가 만든 말로 밈(meme)이라는 게 있는 것이지요. DNA와 똑같이 문화 유전자도 공간적으로 확산되고 시간적으로 계승됩니다. 우리 사회는 가정윤리의 밈은 강한테 사회문화의 그 유전자는 약해요.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윤리, 즉 ‘나보다 너 먼저(AFTER YOU)’의 양보나 배려는 부족하다는 거죠. 맹목적 경쟁이죠. 엘리베이터에서 몇 초 빨리 나간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남보다 반 발자국이라도 앞서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과잉경쟁을 하는 겁니다. 배고픈 것은 참아도 남 잘 되는 배아픔은 못 참는 민족이에요.

우리는 원래 경쟁이 무엇인지 모르고 상부상조하는 농경사회의 품앗이 미덕을 갖고 살았지요. 역사사지(易地思之)라는 배려도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고도 산업사회로 진입해 치열한 경쟁의 고속 사회에서 살게 된 것이지요. 경쟁에 익숙하지 못한 사회였기에 역설적으로 서구보다 더 치열한 경쟁 사회로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경쟁의 윤리도, 룰도 없는 혼란을 겪게 된 겁니다. 서부영화에서 보듯 총잡이 무법자들이 판치

는 사회에서는 그 피해를 입은 끝에, 새로운 질서와 패어 플레이 룰이 만들어지지요. 가령 뒤에서 쏘는 백 피어를 하지 않는다거나, 30년의 종교전쟁 끝에 웨스트팔리아 조약이 생겨나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당시 독일 인구가 1600만명이었는데 전쟁이 끝나고 보니 인구가 600만명 남았다고 해요. 이런 혹독한 대가를 치르면서 큰 나라도 작은 나라도 다 같이 주권국가로서의 권리를 지키며 내정간섭을 하지 않고 평화를 지켜야겠다는 합의점에 이른 것이죠. 우리는 이런 고난을 겪지 않고 주권국가로 진입했어요. 30년 전쟁 같은 값비싼 희생을 치루고 겨우 얻어낸 평화보다는 그것을 교육이나 영지(英智)를 통해 얻어내야 한다는 측면에서 아주대의 프로그램은 합리적인 사회운동의 모델이 될 것으로 봅니다.

추운 데 떨고 있는 사람이 존재하는 한 내 존재는 자유로울 수 없어요. 돈을 주든 안 주든 나는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쳐도 마음에 걸리니까요. 실존적 자각에 의해서 남의 아픔이나 어려움에 공감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교육의 역할이죠. 그런데 그 교육 자체가 획일적이고 관습적이고 관료적이라면 그것은 안하는 것보다 더 위험해요.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줬어, 그런데 그게 마음에서 우러나온 게 아니라 주위의 압력이나 부화뇌동식 구호와 유행물이 되면 위선적인 행위로 그치고 말겠지요. 요즘은 심리학이 윤리학을 대신하고, 뇌 과학이 심리학을 대체하는 시대라 마음보다 기계적인 시스템의 산물로 인간의 마음을 정형화 합니다. 과학자들은 남을 배려하는 것도 어떤 윤리의식이나 심리가 아니라 인간의 뇌에 있는 미러뉴런의 반응으로 풀이하죠.

복지사회의 출발인 스웨덴에는 ‘omsorg’라는 말이 있어요. 음소르는 특별한 이념이나 사회과학 용어가 아니라 ‘슬픔을 나누는 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이 말은 1930년대 대공황때 나온 건데 제도나 이념이라기 보다는 인간이 갖고 있는 본래의 마음을 이끌어 내어 자연스러운 사회 운동으로 연결한 것이죠. 이 정신을 기반으로 스웨덴에서 복지제도가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이게 ‘제도’로 굳어지다 보니 시스템만 남고 정신은 희미해진 거죠. 대학은 제도를 만드는 데가 아니에요. 제대로 “애프터유” 프로그램을 제도화, 관료화, 시스템화해서는 안돼요. 실존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공동체적 사랑

### 추위에 떠는 사람 존재하는 한 내 존재 자유로울 수 없어

### 교육... 획일적, 관습적, 관료적이면 안하는 것보다 위험

### “AFTER YOU”도 제도화, 관료화 안돼 철저히 실존적, 공동체적 사랑에서 비롯돼야



에서 비롯된 운동이 되어야 해요. 사회가 아닌 아주대처럼 교육의 현장에서 생겨나는 것, 그게 진짜 값진 일입니다.

아주대의 이번 프로그램이 꼭 성공하리라 믿어요. 정치가들이 이런 운동을 펴면 표를 얻기 위한 제스처로 오해를 받지만 대학 캠퍼스에서 일어난 운동은 순수하게 교육이라는 뿌리에서 발생한 것이니까요. 다만 앞으로의 발전과 성공은 세부적인 프로그램에 의해 좌우되겠지요. 아주대의 모티베이션이 성공하면 각 대학으로 번져나갈 것이고, 우리 사회와 세계로 퍼져 나갈 수도 있다고 봐요.

서울올림픽 총감독이셨을 때, 동양의 ‘공백의 미’를 굴렁쇠 소년으로써 서양의 관념 한 부분을 망치로 한 방 때리는 듯 하는 크리에이티브를 실현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고나 의도도 결국 설계의 각론적 의미와 가치가 실리는 아이디어가 문제인데요, 시대의 크리에이터로서 “애프터유” 운동의 구체성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제가 시작한 프로젝트 중 <세살 마을>이라는 게 있어요. 어린 아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싶어서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세 살까지는 이 사회가 나서서 어린 아이들에게 고무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는 뜻에서 만든 육아 생명 공동체 운동이에요. 나의 기쁨이 그의 기쁨이 되어야 해요. 지금까지 한국 사회는 ‘아이구, 내 새끼’의 논리였어요. 그 위에서 경제 발전이 이뤄졌죠. 그렇다보니 실제로는 남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서 겉으로만 ‘우리가 남이’를 외치고 있죠. 남의 새끼가 내 새끼와 똑같아야 하는데 그게 어디 쉬운가요?

가족단위의 정이나 윤리를, 그 범위를 넓히는 게 대학의 역할이에요. 가령 대학 졸업식 광경을 비교해 볼까요. 미국 대학의 경우 그렇게 자유분방하던 학생들이 졸업식에는 아주 경건하고 질서있게 임해요. 배움의 결과입니다. 학부형들도 자기 아이 남의 아이 할 것 없이 다 축하해줘요. 그런데 우리는 끼리끼리 사진 찍고 난장판입니다. 버클리 대학 졸업식장에서 학생들이 초청한 명사가 한 기념강연을 듣고 졸업생들이 일제히 기립박수 치는 것을 보고 참 부러웠어요. 나도 저렇게 우리 대학 졸업식에 초청받아 학생들에게 역사에 남을 명연설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했어요.



DREAM HIGH THINK BIG ACT NOW

“애프터유” 운동이 제대로 되려면 프로젝트성 프로그램이 있어야 해요. 자기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학생들이 졸업 전 창의적인 프로그램 하나를 완성하는 것이죠. 여럿이 함께 하는 공동 프로젝트도 좋아요. 그 중 뜻이 있고 아이디어도 좋지만 집안이 어려워 포기할 수밖에 없는 학생이 있다면, 그럴 때 학교나 후원단체가 그 프로젝트를 돕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구글과 애플이 나오고 새로운 주커버그(페이스북 CEO)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커버그 나와라’ 하고 명석 퍼주면 절대 주커버그는 안 나와요. 하다 보니 주커버그가 나오는 게 진짜 성공이죠.

대학에서는 아이디어와 창의력과 상상력이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해요. 그런 프로젝트들이 모이면 아주대학교발(發) 문화 유전자 밭이 탄생해요. 그런 대학이 많다면, 대중이 어느 대학이 가장 창의적인 문화적 밭을 뿌렸나를 보게 되겠지요. 이렇게 대학의 지형이 달라지는 거예요. 대학에는 지적 평등이 있어요. 딱 막힌 사회에 숨구멍을 뚫어주는 게 대학이죠. 가족과 사회의 중간 지점, 인터섹션(intersection)으로서 가장 자유롭고 평등한 공간이에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숨 쉬고 대학에서 나는 문화 밭을 사회에 나와서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해요. 이게 대학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교육이죠.

경제적 자본은 쉽게 알아봐요. 그러니 경제적 평등은 부르짖기도 쉬워요. 그런데 프랑스 사회학자 부르디외가 말한 문화 자본은 그렇지 않아요. 문화적 자본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 삶의 질을 좌우하죠. 경제적 자본보다 더 중요해요. 대물림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문화적 자본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학에서 논의되어야 해요. 제가 어려서 시골에 살 때 저희 집에는 오르간도 있었고 형님들이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기에 꽤 괜찮은 문화적 자본을 향유하고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서울에 올라왔더니, 설탕과 연유를 범벅해서 커피를 마시는 나와 쓴 커피를 마시는 친구들의 모습이 그렇게 비교되더라고요. 클래식 음악에 대한 수준도 달라요. 그때 그 열등의식과 모멸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가치가 다양해야 해요. 왜 음악대학을 나오면 꼭 세계적인 연주자가 되어야 하고 도밍고

## “주커버그 나와라!” 가 아니고 “하다 보니 주커버그” 나오게 해야

## 결정적 삶의 질 차이는 경제 자본이 아니라, 문화 자본이 좌우

## 대물림도 훨씬 센 것 깨달아야

## 대학의 운동은 지적, 비판료적, 학생 아이디어 있어야 피라미드 사회를 순환사회로 바꾸는데 기여할 것



가 되어야 하죠? 내 아들과 부인에게 아침, 저녁으로 노래해주며 그들을 행복하게 해 주는 것도 행복이잖아요. 직장에서 돈 벌어다 주는 아버지만 고마운 게 아니라 함께 미술관에 가서 고희와 세잔을 감상하고 대화를 나누는 아버지도 대단하죠. 지금은 예술도 목적이 아닌 수단이 되어 버렸어요. 산다는 게 뭐예요. 돈이 없어도 재벌 보다 행복할 수 있어요. 아침 해 뜨는 광경을 보면 매일 달라요. 한 번도 똑같이 아침이 오는 법은 없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그림이 어디 또 있어요? 이런 환희를 알면 돈 욕심도 덜 가지는 거죠. 로맨티스트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1,000원을 벌어도 10만원 어치의 생활을 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대학에서는 이런 걸 들려주고 알려줘야 해요. 집에서는 누리지 못하는 문화자본의 향유, 그 기회를 대학에서 넓혀줘야죠.

그렇게 해서 아주대 주변의 동네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학교를 둘러싼 커뮤니티가 형성되면서 학교의 담이 사회를 향해 열리는 겁니다. “애프터유”의 중착점이죠. 커뮤니티가 살아야 대학도 살아요.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을 갔는데 한참을 보고 ‘어디가 대학이요?’ 하니깐 지금까지 본 게 다 케임브리지대학이래. 그냥 동네죠 학교 동네. 아주대 주변 주민들이 ‘아주대 애들이 다 내 딸이고 내 아들이야’ 해야죠. 대학이라는 외딴 섬이 아니라 추억과 이야기가 있는 커뮤니티가 필요해요.

정리하자면, 대학에서 하는 운동은 첫째 지적이어야 하고 둘째 비판료적 시스템이어야 해요. 셋째로 학생들로부터 나온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바텀-업(bottom-up), 네 번째로 공감할 수 있는 무언가여야 해요.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도를 해야지, 기존의 패러다임 속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소용없어요. 피라미드 사회를 순환하는 사회로 만들어야죠.

**“애프터유” 운동도 일차적으로 아주대 학생이나 젊은이를 위해 펼쳐지고 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스펙’이라는 젊은이들에게 현실적 진로가 녹록치 않은 게 사실임에도, 이 사회가 한사코 꿈을 가지라는 것은 ‘희망 고문’일 뿐이라는 지적이 아프게 들리는 건 사실입니다. 요즘의 젊은이들에게 한 말씀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멘토, 즉 ‘큰 바위 얼굴’이 있어야 해요. 혼자 힘으로는 안 되죠. 예전 젊은이들에겐 부모가 큰 바위 얼굴이었죠. 어머니, 아버지가 불쌍했거든. 내가 도와야 한다는 말이 절로 들었죠. 요즘엔 부모가 미워요.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하는 경우가 많지. 이걸 대학에서 회복시켜줘야 해요. 정말 건전한 의미에서의 멘토가 필요해요. 실망하더라도 ‘아, 세상이 이렇구나’ 하는 걸 배울 거예요.

두 번째로, 영국 수상을 지낸 대처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가난한 사람은 주위에 부자가 있기에 가난한 게 아니다.” 대부분은 저기 나보다 부자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죠. 그건 구체불능이에요. 부와 가난의 기준은 나에게 있는 거죠. ‘자족(自足)’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내 맘 속에 부와 가난의 척도가 있는 거지. 그 기준을 밖에서 두면 일생이 불행하죠. 경제적 부만이 아니라 문화적 자본과 관계시켜 생각해보라고 조언하고 싶어요.

셋째로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사고는 하지 마세요. 실질적으로 손에 잡히는 이야기해야 돼요. 치밀하고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게 꿈이지 ‘뜨구름’은 꿈이 아니에요. 어른들이 흔히 젊은이들은 꿈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허황된 꿈을 꾸라는 게 아니에요. 진화론으로 유명한 다윈은 40년 동안 지렁이를 관찰했다고 해요. 40년 동안 지렁이에 대해 백회를 뿌리고, 백회 묻은 층이 10년 후에는 어디까지 내려가나 하는 똑같은 실험을 했다는 거지. 원래 다윈은 지질학자였거든요. 후세에 다윈에 대해 이렇게 말을 했어요.

“We love your stupid experiment.” 스티브 잡스도 스탠포드대학 졸업식에 가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지. “Stay hungry. Stay foolish.” 요즘 학생들은 너무 똑똑해요. 어수룩한 사람이 되세요. 남이 손해난다고 절대 안 하는 거를 해보세요.

내가 국문과 들어간다고 할 때 우리 집이 초상집이었어요. 내가 의대나 법대를 들어가서 우리 몰락한 집안을 먹여 살릴 거라고 생각했던 거지. 우리 백부께 국문과를 간다고 했더니 뭐하는 데냐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문학을 하는 데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아니 대학까지 간 놈들이 아직 언론을 못 깨우쳤나”며 혀를 끌끌 차더라고요. 또래 친구들은 의대, 법대 간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이 나이 되도록 이렇게 활동하는건 나뿐이에요. 80 넘어서 의사하고 변호사할수가있나? 근데 나는 지금도 글 쓰고 강연을 해요. 자기가 평생을 할수 있는 것, 그것을 하라는 게 바로 '어리석다'는 거지. 남들이 볼 때 어리석다고 하는 선택을 하는 게 오히려 현명한 길이 될수있다는 거죠.

내가 강연하고 기립박수 받은 첫 대학이 아주 대학이에요. 애들이 정말 내 말에 감동하고 강연 끝나니까 쪽 일어나서 박수를 쳐줬어. 대학에서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아주 대학교 학생들은 '눈동자가 빛나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학력? 수능? 중요하지 않아요. '샤이닝 아이(Shining Eye)', 이게 젊은 학생들에게 주고 싶은 한마디 말입니다. Shining Eye! AJOUINSIGHT.

2015년 8월 12일 한중일문화연구소

인터뷰 **남경호** 초빙교수 / **박승하** 홍보실장  
 기록·정리 **이솔**  
 사진 **정우준**



# "AFTER YOU" 프로그램 2015 SUMMER GLOBAL CAMPUS REPORT

Photo Sketch: Suwon-Ann Arbor-Shanghai-Washington D.C.

'유쾌한 반란'이 세계를 잡니다-

## "그 친구를 보내자!"

어려운 환경에 있는 친구,  
꿈과 의지는 높으나 힘들어 하는 젊은이가 없었습니까?  
그에게 귀하와 우리 학교, 사회, 그리고 미래가  
같지도 못 깊은 손을 내밀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인생과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나보다 너 먼저"가 우리에게서 시작됩니다

"AFTER YOU" 프로그램  
2015 여름 아주글로벌캠퍼스

DREAM HIGH  
THINK BIG  
ACT NOW



학부, 여리분, 교수님, 교직원 분들께서 인고 계신 어리운 학우님에 대한 주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031 219-2035/2923

유쾌함을 용기로 바꾸는, 것이 유쾌한 반란이다

올여름  
미국 미시간대,  
존스홉킨스대와  
중국 상해교통대에서  
아주인의  
'유쾌한 반란'이  
시작됩니다.

세계적 명문대에서  
4주간 펼쳐질  
여름보다 뜨거운  
열정을  
아주인 모두가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Michigan



미시간대학교  
아주 캠퍼스  
4주 대학 2주

2015. 7. 13. (월) - 8. 7. (금) / 4주  
일중 영어 수업 (주 20시간) +  
현지 대학 생 버디와 친견 캠퍼스 (주 10시간)  
수준별 2개반 편성, 교양선택 3학점 부여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원장 학습, 실습, 국제 교류)  
아주대학교 국제인턴 학생 프로그램 (일부 대상 포함)  
관객 장학금 (2만 원 이상)

### Shanghai Jiaotong University



상해교통대학교  
아주 캠퍼스

2015. 7. 6. (월) - 7. 31. (금) / 4주  
일중 중국어 수업 (주 15시간) +  
현지 대학 생 버디와 친견 (주 15시간)  
수준별 2개반 편성, 교양선택 3학점 부여  
중국 문화 실습 (현지 가정 방문, 시·연극·다도 체험)  
아주대학교 국제인턴 학생 프로그램 (일부 대상 포함)  
관객 장학금 (2만 원 이상)

### Johns Hopkins University SAIS, Washington D.C.



존스홉킨스대학교  
미국 워싱턴 D.C.  
4주 대학 1주

2015. 7. 20. (월) - 8. 14. (금) / 4주  
일중 영어 수업 (주 10시간) +  
현지 대학 생 버디와 친견 (주 15시간)  
수준별 2개반 편성, 교양선택 3학점 부여  
국제대학원 (SAIS) 주관 국제관계 실용교육  
(특강, 미 정부 기법, 국제기구 방문)  
아주대학교 학생 프로그램  
관객 장학금 (2만 원 이상)

신청처  
4/16 | 6:00PM  
출발관 대강당

신청기간  
4/13 | 30 | 6:00PM  
www.ajou.ac.kr

미시간대, 상해교통대, 존스홉킨스대 관련 본 프로그램 취지에 공감하는 학생이나 지원금으로 여망합니다  
아주대학교



"에프터유 - 2015 여름 아주 글로벌 캠퍼스"는 여러  
어려움 탓에 해외 경험을 쌓기 어려웠던 학생들을  
위한 고강도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다.  
첫 참가자 79명이 미국·중국 명문대학에서 4주를  
보냈다. 미국 미시간대학과 중국 상해교통대학 참가  
자에게는 전액 장학금이,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참가  
자에게는 소요비용의 60%가 지원됐다.  
재원은 '100만원의 기적'이라는 캠페인을 통해 마련  
했다. '사회적 이동성 제고'라는 취지에 공감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금에 참여했다.  
참가자 선발은 '꿈과 의지'라는 기준으로 진행했다.  
영어와 학점은 보지 않았다. 미시간대학과 상해교통  
대학 파견 인원의 20%를 타 대학 학생들에게 개방  
했다. 친구·교수·직원 추천제도 병행했다.  
참가자들은 강도 높은 언어 수업에 다양한 문화 교류  
를 경험했다. 주 20시간의 영어수업을 받았고 매일  
꼬박 2시간씩은 현지 대학생·대학원생들과 공부  
하고 교류했다.  
파견 전·후로 명사 멘토링도 마련됐다. 어려운 환경  
에서 희망을 일군 각계각층의 사회 저명 인사들이  
멘토로 참여했다.



DREAM HIGH THINK BIG ACT NOW



# “AFTER YOU” 프로그램 2015 SUMMER GLOBAL CAMPUS REPORT

Photo Sketch: Suwon-Ann Arbor-Shanghai-Washington D.C.

DREAM HIGH THINK BIG ACT NOW



## 젊음의 Turning Point

‘아! 그 지식의 의미는 이런 것이었구나’를 많이 느꼈다. 워싱턴에서의 4주 동안 값지게 얻은 것은 ‘의문’이었다. 한달 간 마주한 의문들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했다.  
자준경 아주대 경제학과 12학년

꿈 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별 헤는 맘으로 없는 길 가려네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설레는 맘으로 낮은 길 가려 하네

간디학교의 교가 중 한 부분이다. 나는 그동안 내가 내 꿈을 꾸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기준은 돈이었고 직업이었다. 이곳에서 포용과 여유와 사람에 대한 사랑을 배웠다.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를 절감했다. 언어란 점수화로 판단되고, 스펙화 되어지는 것이 아니어야 했다. 세계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도구였었다. 새롭게 꿈꾸겠다. 꿈은 각오라는 말과 동의어다. 유쾌한 반란과 같은 의미다. 낮은 길, 좁은 길로 거침없이 나아가겠다.

김영은 아주대 건축학과 11학년

고백한다. 영어실력의 변화보다 가치관의 변화가 더 컸다. 나는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내가 가장 절박하다고 믿었다. “에프터유” 프로그램은 그런 나를 성찰시켰다. 누군가의 배려와 양보와 여유를 받았다.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주고 싶다는 욕심이 처음 생겼다.

황서현 아주대 미디어학과 12학년





이루고자 하는 것은 내 손에 달려있다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  
 절실하게 느꼈다. 새로운 경험과 목표를 똑 바로 잡게 하는  
 기회를 주신 멘토님들과 후원자분들께 감사드린다.  
 한국과 중국을 잇는 한류 콘텐츠 기획자가 되기 위한 내 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됐다.

**김혜인** 아주대 경영학과 14학번

우리는 브레이크 고장 난 자동차였다.  
 각자가 가졌던 목표를 향해 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에너지를  
 여기서 충분히, 가득 채운 것 같다.  
 소중한 사람들의 힘이 모여서 우리가 다녀온 만큼,  
 기대에 부응하고 스스로에게 떳떳하기 위해  
 더 큰 사람이 되어야겠다.  
 훗날 우리도 누군가의 멘토가 되는 피니시라인을 힘차게  
 통과해야 한다.

**문현철** 아주대 전자공학과 10학번

꿈을 향한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기회였다.  
 세계를 향한 열망을 폭발시키는 순간이었다.  
 강한 동기부여도 하나 생겼다.  
 반드시 꿈을 이루어 좋은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에프터유" 프로그램이 내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더 많은 학우들의 운명이 변화 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

**강동호** 아주대 문화콘텐츠학과 11학번



# "AFTER YOU" 프로그램 2015 SUMMER GLOBAL CAMPUS REPORT *The Young Visions*

DREAM HIGH THINK BIG ACT NOW



"아주 바빴고 아주 유익했고 아주 행복했다."  
신지오 영어영문학과 10학번



"감명 깊은 이야기들이 넘치고 넘쳤다."  
전수진 간호학과 13학번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다"  
김영은 건축학과 11학번



"시야가 넓어졌다. 멀리 달려야겠다."  
장종환 경영학과 11학번



"열심히 것. 최선을 다 할 것. 이것들을 즐길 것"  
김중현 경제대사범기반사스통공학과 10학번



"이제 애프터유의 유지, 발전이 나의 꿈이다!"  
김진철 기계공학과 11학번



"영어를 가르치는 방법까지 배운 것 같다."  
김혜인 경영학과 14학번



"압박이란 녀석을 놓고 왔다"  
김경환 심리학과 10학번



"성격이 바뀌었다. 누구와도 친해 질 것이다"  
윤영준 교통신용공학과 11학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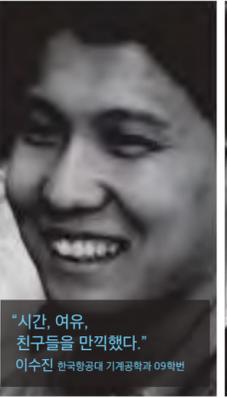
"영어도, 문화도 행복이었다."  
이만석 경영학과 10학번



"유쾌한 반란의 주인공은, 바로 나"  
이상수 경제학과 12학번



"두려움도 새로워서 좋았다."  
이은혜 영어영문학과 13학번



"시간, 여유, 친구들을 만끽했다."  
이수진 한국항공대 기계공학과 09학번



"여유있는 삶도 배우는 것이었다."  
이연형 산업공학과 11학번



"애프터유의 꿈이 더 많은 이들에게"  
이우영 기계공학과 12학번



"스스로에 대한 공부의 시간이었다."  
임가연 환경공학과 13학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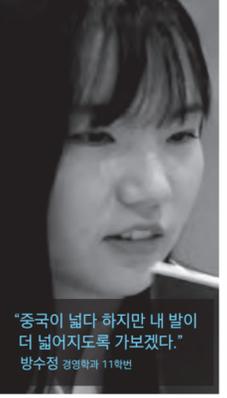
"큰 영감을 받았으니 발전할 일만 남은 셈이다."  
이승철 금융공학과 09학번



"애프터유로 기회를 잡아라!"  
강동호 문화콘텐츠학과 11학번



"기회를 만들어 주는 사람이 되겠다."  
강대련 경영학과 14학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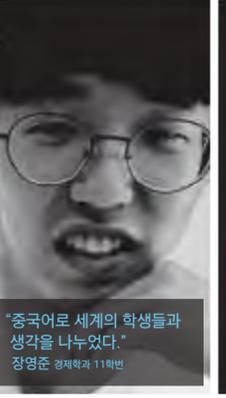
"중국이 넓다 하지만 내 발이 더 넓어지도록 가보겠다."  
방수연 경영학과 11학번



"애프터유로 통하다!"  
조준우 한국외대 중국어통번역학과 13학번



"생각이 트였다."  
조성원 경희대 건축공학과 10학번



"중국어로 세계의 학생들과 생각을 나누었다."  
장영준 경제학과 11학번



"나에 대해 반성하고 생각했다. 터닝포인트였다."  
김승 경영학과 11학번



"새 사람들과의 새 만남이 최고의 행복!"  
김다혜 생명공학과 12학번



"기회를 주신 학교와 기부자들에게 감사한다."  
안규리 생명공학과 08학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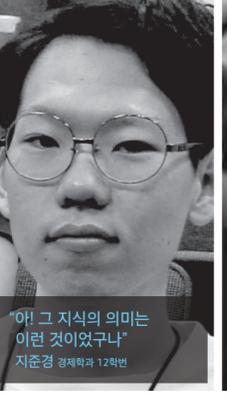
"상해의 한달은 '나에 대한 시험'이었다."  
문희정 영어영문학과 15학번



"꿈 같은 시간과 각오를 선명히 기억하겠다."  
백창현 정보컴퓨터공학과 11학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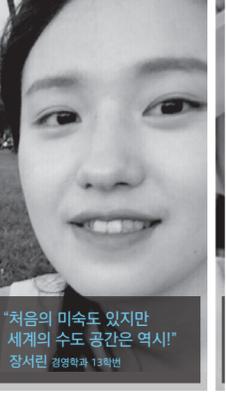
"이루고자 하는 바는 내 손에 달려있다는 것"  
황서현 미디어학과 12학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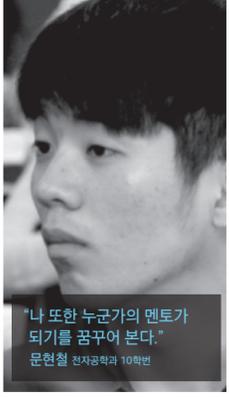
"아! 그 지식의 의미는 이런 것이었구나"  
지준경 경제학과 12학번



"영어보다 문화를 깊이 이해했다"  
김세호 한국대 무역학과 11학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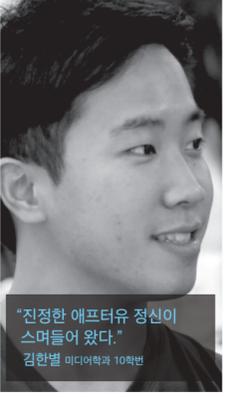
"처음의 미숙도 있지만 세계의 수도 공간은 역시!"  
장서린 경영학과 13학번



"나 또한 누군가의 멘토가 되기를 꿈꾸어 본다."  
문현철 전자공학과 10학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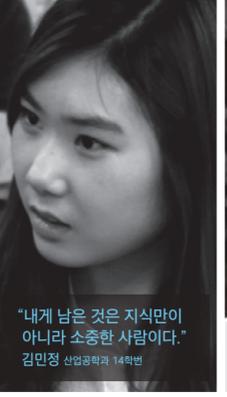
"지식이 아닌 지혜를 키울 수 있는 기회"  
도원빈 경영학과 14학번



"진정한 애프터유 정신이 스며들어 왔다."  
김한별 미디어학과 10학번



"우물 밖 개구리가 되겠다"  
김수현 e-비즈 13학번



"내게 남은 것은 지식만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이다."  
김민정 산업공학과 14학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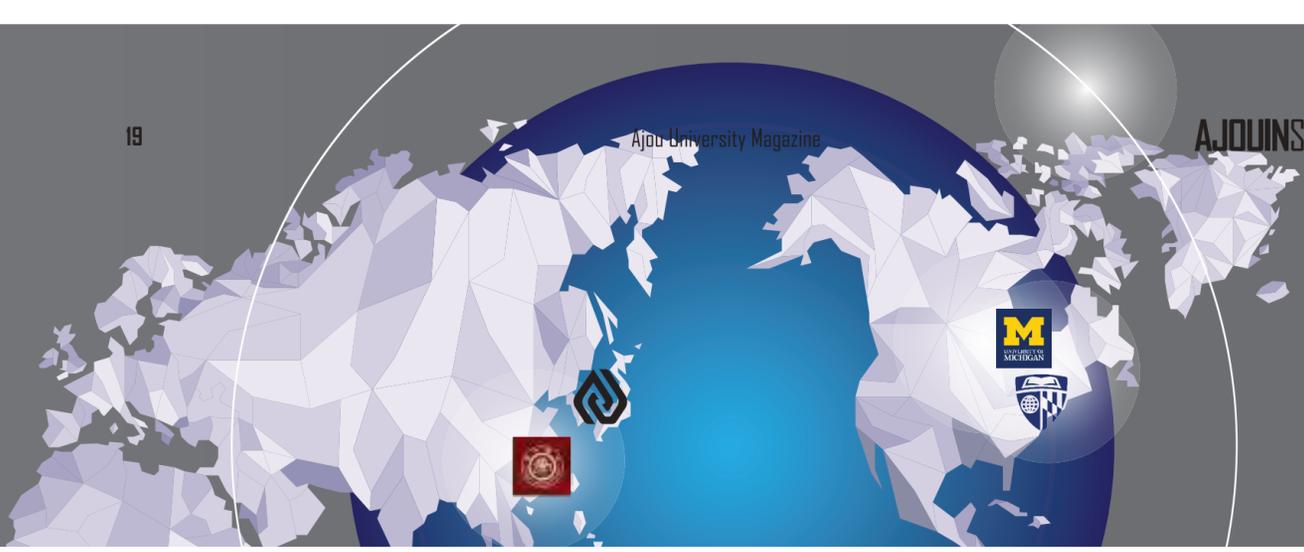
"마음 속의 벽, 두려움을 부수는 것이 중요"  
김동준 생명공학과 10학번



"피나는 노력 필요한 우물 안 개구리였다."  
김동규 영어영문학과 09학번



"인연이 가장 큰 수확"  
김다혜 역학과 12학번



“영어 ‘성적’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  
문수진 정치외교학과 14학번



“여기의 나날들이 버팀목이 될 것”  
박경지 심리학과 11학번



“사람들과의 만남이 최고!”  
박수연 응용화학생명공학과 12학번



“여유와 친화력을 배우다”  
박수진 응용화학생명공학과 13학번



“깊은 추억”  
서아연 기계공학과 11학번



“푸른 잔디 위에서의 각오를 소중히”  
송보석 성공관대 신소재공학과 10학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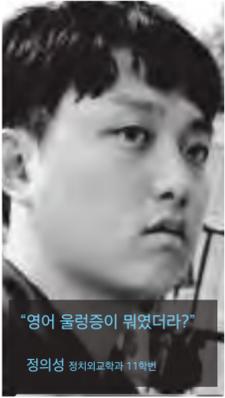
“꿈과 욕심이 비만해졌다.”  
우준영 한국외대 통계학과 10학번



“현재에 충실 하는 것이 행복임을 깨달았다.”  
윤소영 신임공학과 11학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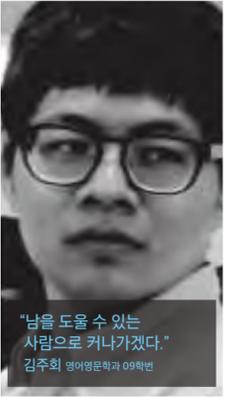
“미국인들은 개인적이라고? 감동을 배웠다.”  
김재원 소프트웨어융합학과 12학번



“영어 울렁증이 뭐였더라?”  
정경성 정치외교학과 11학번



“항상 바빴었다. 여유와 자아를 찾아왔다.”  
홍해민 화학공학과 13학번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커나가겠다.”  
김주희 영어영문학과 09학번



“공부가 필요하구나!”  
이희운 심리학과 10학번



“상해명문교표 자신감을 가져왔다.”  
최연지 e-비즈 13학번



“이것은 끝이 아니다. 더 크고 깊어지겠다.”  
권오은 경기대 행정학과 11학번



“미시간에서의 하루하루여-오래오래 함께 가자.”  
정희성 심리학과 11학번



“성정하는 내가 보였다.”  
김경혜 신임공학과 13학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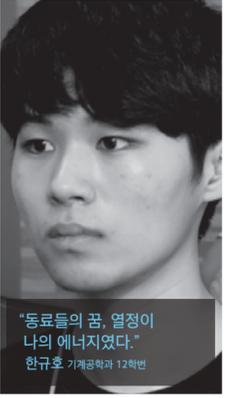
“크고 깊은 나라, 중국에 빠졌다.”  
문혜일 한신대 중국학과 15학번



“다음 에프터유인들의 도전에 격려를!”  
박하연 문화콘텐츠학과 12학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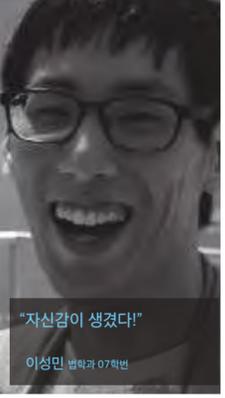
“도움 받은 만큼 도움 주는 사람 되겠다.”  
서지훈 성공관대 신소재공학부 10학번



“동료들의 꿈, 열정이 나의 에너지였다.”  
한규호 기계공학과 12학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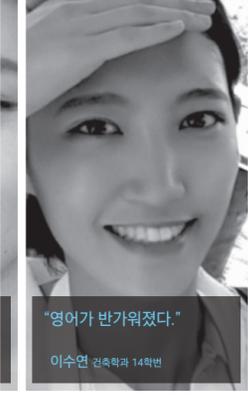
“큰 욕심을 갖겠노라.”  
오수연 기계공학과 12학번



“자신감이 생겼다!”  
이성민 법학과 07학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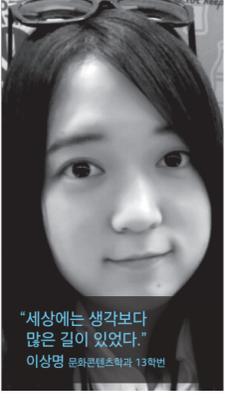
“지구 곳곳에서 온 수많은 친구들과의 공부!”  
정소연 사회학과 10학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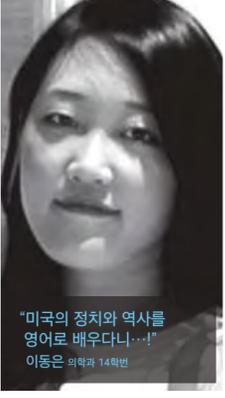
“영어가 반가워졌다.”  
이수연 건축학과 14학번



“경험이란 것들이 이렇게 신신하다니!”  
유승효 경영학과 14학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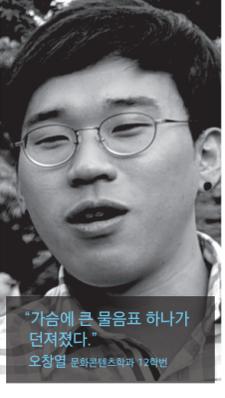
“세상에는 생각보다 많은 길이 있었다.”  
이상명 문화콘텐츠학과 13학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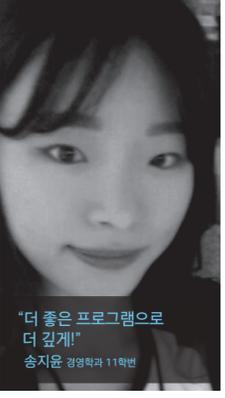
“미국의 정치와 역사를 영어로 배우다니...!”  
이동은 의학과 14학번



“새로운 사람들이 가장 큰 선물”  
이세원 간호학과 14학번



“기슴에 큰 물음표 하나가 던져졌다.”  
오창열 문화콘텐츠학과 12학번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더 깊게!”  
송지윤 경영학과 11학번



“워싱턴 D.C.는 마냥 신기한 세상이었다.”  
박은지 응용화학생명공학과 13학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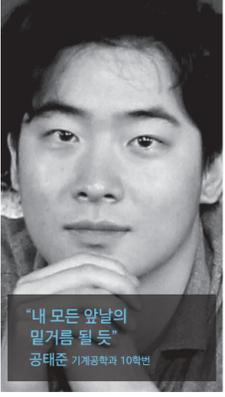
“열정적 동료들에게서 가장 깊게 배웠다.”  
김가은 간호학과 14학번



“워싱턴 발, 터닝포인트!”  
권준희 영어영문학과 13학번



“워기야, 덤벼라 기회로 바꿔주마!”  
권수진 경제학과 11학번



“내 모든 앞날의 밑거름 될 듯”  
공태준 기계공학과 10학번



“자극과 영광의 경험이다.”  
한지은 정치외교학과 12학번



“꿈이 넓어졌다.”  
강신현 기계공학과 12학번



“내게 귀중한 변화를 참 많이도 주었다.”  
장은진 약학과 12학번



이왕희 응용화학생명공학과 10학번  
최종 선발 되었으나 비자 문제로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에프터유 학생들의 마음만은 늘 왕희와 함께 합니다.

“에프터유” 프로그램에는 아주대 직원 3명(미시간대 고지영/인문대 교학팀, 김지선/인문대 교학팀, 존스홉킨스대 박성숙/기계공학과 교학팀)도 선발돼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다녀 오신 학생, 교직원 분들이 나보다 더 어려운 학생들을 추천하여, “에프터유” 정신이 더 의미있게 퍼지도록 앞장 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AFTER YOU” 프로그램 2015 SUMMER GLOBAL CAMPUS REPORT

Representatives' Comment



이번 “에프터유” 아주 글로벌캠퍼스는 우리 미시간대의 국제화 부문 발전에도 중요한 기여를 해주었습니다. 아주대학교 학생들을 비롯한 모든 참여 학생들이 우리 미시간 캠퍼스에 문화적 다양성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김 총장이 미시간대학 동문으로서 우리 대학을 파트너로 선택해 주어 그 의미가 더 특별합니다. 우리는 김 총장의 교육이 변혁적 인 힘을 가질 수 있다는 데에 깊이 공감합니다.

미시간대학은 “에프터유” 프로그램의 학생들을 위해 고강도 영어 교육과 다양한 문화체험을 마련했습니다. 짧은 시간 진행된 프로그램이지만 참가자들에게는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투자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기쁜 것은 저희 미시간대 학생들이 “에프터유” 프로그램 학생들의 앰버서더로 함께해 그들의 영어 실력 향상을 도우면서 깊은 우정을 쌓았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아주대학교와 미시간대학교 간의 파트너십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 두 대학 사이의 중요한 고리가 되어준 이 프로그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주대와 공동 추진한 여름 프로그램은 우리 대학의 국제화 분야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때마침 인문대학과 국제교육대학의 통합으로 새롭게 조직된 상해교통대학 인문대학이 이번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보다 더 많은 자원을 투입했습니다. 다섯 분의 전임 교수님과, 세 분의 실습과정 지도교수, 아홉 명의 학생봉사자, 한 분의 특장 교수께서 이번 프로그램을 위해 수고해주셨습니다.

‘배움과 활용은 겸비 한다’는 원칙 아래 루쉰기념관, 상해박물관 등의 학술적 활동은 물론 중국 노래 부르기, 중국 시 낭송 등 예술 활동도 병행했습니다. 한국 SK그룹, 중국 중흥그룹, 한국 파리바게트 등 유명 기업의 탐방활동도 추진했습니다. 이와 같은 풍부한 언어학과 문화탐방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내는 물론 중국 전통문화, 중국 경제와 사회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도 가능했습니다. 긴장되면서도 즐거웠던 4주간의 시간은 끝이 났지만 상해교통대학교와 아주대학교 간의 우호는 이제 막 시작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은 본교 개교 120주년인 해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양교가 교수, 학생,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 단계 더 발전된 협력과 교류 관계를 수립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중국과 한국은 마치 강 하나를 사이에 둔 것과 같이 밀접한 관계입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상해교통대학교와 아주대학교가 성공적인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After you, the future lies before us!



존스홉킨스대학 국제대학원(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이하 SAIS)은 아주대학교 “에프터유” 프로그램에 함께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에프터유” 프로그램과 SAIS는 ‘21세기를 이끌어갈 글로벌 리더 양성’이라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프터유”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4주 동안 영어 실력을 연마했을 뿐 아니라 다른 문화를 깊이 이해할 기회도 얻었습니다. 워싱턴DC에 위치한SAIS에서 공부하면서 참가자들은 월드뱅크, 미주개발은행, 국회의사당과 같은 주요 기관과 박물관을 방문하고 전문가들의 특강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특강은 미국 정부와 국제 이슈, 인종 문제, 자선활동 등에 대해 이뤄졌습니다. 저희는 참가자들에게 그룹 토의와 특강, 문화체험 등을 통해 끊임없이 영어로 말하고 연습하도록 독려했습니다. 바비큐 파티와 야구 경기 관람 등을 통해 미국인들의 삶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습니다.

존스홉킨스 SAIS는 아주대가 시작한 “에프터유” 프로그램에 동참한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를 통해 앞으로 아주대학교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지속해 나가기 를 희망합니다.

DREAM HIGH THINK BIG ACT NOW



Andrew D. Martin (앤드류 마틴)  
미시간대학 인문대학 학장



杨庆存(양칭춘)  
상해교통대학 인문대학 학장



Peter Lewis (피터 루이스)  
존스홉킨스대학 교무부처장



OUR

SAVE

STUDENTS

AU  
1973

“AFTER YOU” 프로그램

### 아주희망 SOS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학생들을 위한 긴급 자금 지원 제도  
갑작스러운 가족 구성원의 실직이나 병환 등의 이유로 학업을 이어가기  
힘든 학생들에게 작은 도움과 희망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은 누구나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거쳐 자금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2015학년도 1학기  
아주희망SOS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은 학생은 총 19명

지원금액은 1,200만원 규모다. 학생 2명은 삼성그룹 에스원에  
인턴사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희소식이 아니라 기쁨이 행복으로 돌아가지고 진리가 빛이 되어야 한다. 아주희망SOS의  
지원을 통해 취업 준비에 들어가는 비용을 조달할 수 있었고 한 해의 기쁨의 희망연결에  
참여할 수 있었다. 빠른 응답 및 지원금 지급이 두드러져 감사하였다.”

- 영어영문학과 김OO

“아주 학생들이 어려운 환경을 직면하지 않고 그곳엔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힘든 상황에  
지원금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 도움을 받은 학생들은  
더 노력해서 어려운 환경의 후배들을 도울 수 있는 선배가 되었으면 한다.”

- 아주희망SOS 담당 실무자 학생지원팀 고영석과장

# Microsoft Imagine Cup

## 집착은 좋은 것이다

꿈의 무대 'IT 월드컵'에서 달린 JY6팀  
Obsession would be a good thing

아주대 미디어학과 재학생 4명으로 구성된 JY6 팀(지도교수 오규환 미디어학과)이 '세계 최대의 IT 월드컵'이라 불리는 <마이크로소프트(MS) 이매진컵(Imagine Cup)> 파이널 무대에 섰다. JY6팀은 한국 예선과 본선, 월드 세미파이널을 거쳐 당당히 파이널리스트에 선정, 전세계 젊은 이들과 실력을 겨뤘다.

참가자들은 그동안 준비한 아이디어와 작품에 대해 발표하고 심사위원들은 이를 직접 시연하며 평가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파이널리스트들을 위해 시애틀 왕복 항공권과 체류비 일체를 제공했다. 대회 전후로 마이크로소프트 본사를 방문하고 이 회사 소속 각 분야 전문가들과 교류하는 시간도 가졌다.

미디어학과 고성진, 이필수, 허건, 이주희 4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JY6팀은 게임 부문에 참가해 한국 팀으로는 유일하게 월드 파이널 무대를 밟았다. 월드 파이널 게임 부문에는 중국,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선발된 9개 팀이 참가했고 러시아팀이 최종 우승컵의 주인공이 됐다.

JY6팀은 동양적인 느낌을 극대화한 슬라이딩 퍼즐게임 <린(Lynn)>을 개발해 전세계 IT 전문가와 대중 앞에 선보였다. 게임은 구미호가 쓴 책에 빨려 들어간 소녀 린의 이야기를 뼈대로 만들어졌다. 게임 플레이어들은 책 안의 아름다운 동양 화 속으로 들어 가버린 소녀가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구미호가 만든 퍼즐을 풀어나가야 한다.

JY6팀은 기존에 유행하는 게임을 모방하지 않고 독창적인 규칙과 동양적 느낌의 스토리를 개발해 내 대회기간 내내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팀장은 말은 고성진 학생은 "지난 1년 동안 이매진컵을 준비하면서 도전정신과 기업가정신 등 많은 것을 배웠다"며 "이번에 함께 모인 전세계 친구들을 보며 새로운 도전을 꿈꿀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앞으로도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한국 예선을 시작으로 월드 파이널 무대에 서기까지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콘텐츠'라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화려한 발표 자료와 언변, 탄탄한 시장분석 자료도 중요하지만 결국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 콘텐츠 그 자체라는 얘기다.

아주대학교 산학협력원 강의실 한 구석에서 시작된 아이디어가 전세계 젊은이들의 꿈의 무대로 올라서기까지, JY6팀의 열정과 진정성이 그 밑거름이 됐다.

"저희가 모여 만들고자 하는 것을 함께 실현해 가고, 이 게임을 다른 많은 사람들도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닿아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른 아주대 학생들에게도 스펙 쌓기나 우승 여부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스스로의 흥미와 동기를 우선시하면 결과도 자연히 따라올 거라 말해주고 싶어요."

한편 과에서 열린 2008년 이매진컵에서 아주대 '네 알' 팀이 단편영화 부문 우승을 차지한 바 있어 아주인과는 관련이 깊은 대회가 됐다.

AJOURNSIGHT.



## 괴짜 같은 진짜 진짜 같은 괴짜

고성진 / 미디어학과 4  
MS 이매진컵 아주대 <JY6> 팀 리더 인터뷰

주변에서 특이하다고는 하는데 진짜 그런지는 잘 모르겠다. 평범한 것 보다 남들과 다른 게 좋긴 하다. 괴짜면 괴짜일수록 남들과 다른 특별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얘기 일테니 기분 좋다. 남 눈치 잘 안 보는 스타일이다. 지금 하려는 게 맞다 싶으면 그냥 해나가는 식이다. 20대는 그래야 한다고 본다. 영화와 게임이 정말 좋다. 남다른 콘텐츠로 만들고 싶다. 관심이 생기면 집중을 넘어 집착급으로 한다. 그 외의 것들에 정말 신경 쓰고 싶지 않다.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먹을 시간도 아깝다. 먹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 제일 싫다. 빨리 알약 하나로 끼니가 해결이 되는 기술이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 학교에 이런 괴짜가 많다. 걸으려는 아직 안 드러났지만... 그들의 끼가 기회를 만났으면 좋겠다.

DREAMHIGH THINK BIG ACT NOW



마이크로소프트 이매진컵(Imagine Cup)

이매진컵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전세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세계 최대의 글로벌 IT 경진대회다. 'Dream it. Build it. Live it.'을 모토로 열리는 이 대회에는 16세 이상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2003년부터 시작된 이매진컵에는 그동안 총 130여 개국에서 180만 명이 참가했다. 경연은 게임과 이노베이션, 월드 시티즌십 세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이노베이션 부문에서는 혁신적 소프트웨어를, 월드 시티즌십 부문에서는 세상의 난제를 극복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심사한다. 각 부문 최종 우승팀들에게는 5만 달러, 2위 팀에게는 1만 달러, 3위 팀에게는 5000달러가 상금으로 주어진다. 2015년 최종 우승의 영예는 본인의 지수와 원하는 패턴 등을 온라인으로 입력하기만 하면 되는 개인 맞춤형 재단 솔루션을 개발한 브라질 dFiFashion팀이 차지했다.

# 유쾌한 반란

# Global Internship



아주인의 유쾌한 반란이 세계를 간다. 글로벌 기업의 실무와 문화를 체험할 기회가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세계적 자동차 제조사 BMW와 미국 최대 한인 회계법인 CKP, 대한 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이 그 무대다.

올 1학기 '유쾌한 반란 글로벌 인턴십'을 통해 14명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이어서 2, 3차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된다.



## '유쾌한 반란 - 글로벌 인턴십'

### 1차

**BMW 인턴십/총 5개월**

- BMW 코리아 본사 7월 ~ 8월 근무
- BMW 독일 본사 9월 ~ 11월 근무
- 김선규 e-비즈 4 · 김도영 경영 4

**CKP 인턴십/총 3개월**

- 미국 샌디에고 CKP 지사
- 노화정 e-비즈 4
- 김형준 경영 4

**KOTRA 인턴십/총 6개월**

- 미국 실리컨벨리 박건희 e-비즈 4
- 박대식 정의 4
- 덴마크 박상현 e-비즈 3
- 핀란드 이슬기 e-비즈 4
- 국내 노희원 정의 3 · 김소현 심리 4
- 권은비 정권 4 · 이승희 영문 4

### 2차

World-OKTA 주관 2015 하반기 해외 한인기업 인턴사업

- 총 3개월
- 파견기업 아시아 중남미 등 해외 소재 한인기업
- 말레이시아 하지희 영문 4 · 인도 신혜림 경영 4

### 3차

World-OKTA 주관 2015 하반기 해외 한인기업 인턴사업

- 총 3개월
- 파견기업 말레이시아 롯데케미칼 타이탄 / 슬로바키아 한인 기업 (참가자 선발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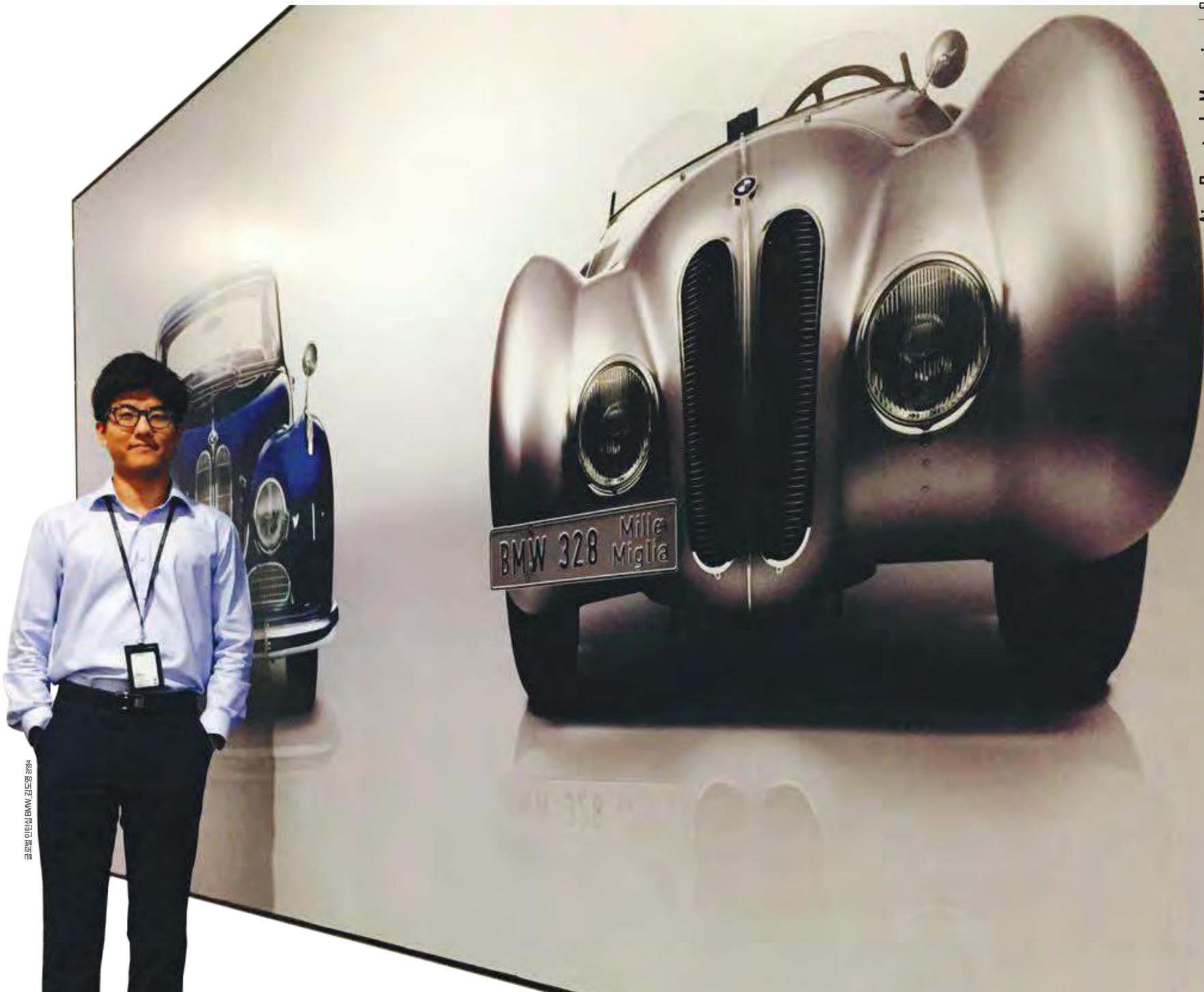
**인터뷰 / 소병천** 대외협력처장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취지는?** 어디서 어떤 일을 해도 국제화마인드와 감각이 필요한 시대다. 글로벌 마인드를 체화하고 세계 무대로 도전을 돕는 거다.

**소감은?** 선발시 '영어 능력' 조건을 명시했더니 준비된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이 극명하게 나뉘었다. 일은 가서 배우면 된다. BMW에서 인턴들을 위한 업무를 따로 마련해 두었다. 보조 인력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계획은?** 규모 · 범위 면에서 모두 확대된다. 당장 2학기에 국제기구와 NGO에 나갈 인턴을 뽑는다. '해외 인턴십 취 · 창업 센터'도 계획돼 있다. 해외 인턴십에 관한 교육, 상담, 사후 관리까지 돕는다. 경기 남부권 청년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할 예정이다. 더 치열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뜻일 수 있다.

**당부는?** 이공계 학생에게 국제화 역량이라는 낯개는 특히 요긴하다. 학교가 여러분의 뒤에 있다. 10월에 공고한다. 준비하고 거침없이 두드려라



글로벌 인턴십 BMW 김도영 8894



# 아주의 그린라이트 어디까지 켜질까?

# 핵전쟁 이후의 세계, 생존자들이 버리고 떠난 오염된 땅에는 폐허가 된 도시만이 남아 있다. 인간의 무기로 쓰였던 전투 로봇들만이 남은 이 메마른 땅에는 통제할 수 없는 혼란이 계속 되는데... 소수의 의식 있는 사람들이 위험한 땅에 남아 예전의 환경으로 되돌리려는 노력을 이어가지만, 성과가 채 나오기도 전 불의의 사고로 대부분이 사망한다. 어린 소녀 마리만이 남아 홀로 과업을 이어가고

# 필요한 부품을 구하기 위해 폐허가 된 도시를 찾아간 마리, 우연히 고장 난 로봇 M-626을 발견한다. 마리는 M-626을 수리해 자신의 보급자리로 데려가지만 전쟁병기로 탄생한 M-626은 모든 행동이 거칠고 폭력적이다. 마리의 계속된 노력으로 점차 변화가는 M-626. 과거 M-626과 싸웠던 전투로봇 P-102가 나타나면서 마리와 M-626의 앞날에는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우게 된다.

DREAMHIGH THINK BIG ACT NOW



What would be the extent of Aju's Green Light?



미디어학과 교수와 재학생·졸업생들이 제작한 3D 애니메이션이 세계 최대 규모의 컴퓨터그래픽 기술 전시회 '시그래프(Siggraph) 2015'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상영작으로 선정됐다. 16분짜리 3D 애니메이션의 제목은 <그린라이트(Green Light)-abandoned city>로 어린소녀와 전쟁 병기용 로봇의 교감을 통해 과학문명의 어두운 일면을 다루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미디어학과 디지털 필름 연구실(DFLab)이 주축이 되어 제작한 이 작품에는 미디어

학과 교수진 뿐 아니라 재학생과 졸업생 20여 명이 참여했다. 미디어학과 석혜정 교수가 총제작과 아트 디렉팅을 맡았고 같은 과 장우진 교수가 시나리오를 지도했다. 미디어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김성민 감독이 연출을 맡아 작품을 지휘했고 미디어학과 대학원 졸업생인 정운설, 임정업, 정호성 씨와 대학원 라이프미디어학과 김대환, 강정화 학생도 참여했다. 미디어학과 졸업생 김준성 씨와 학부생 김예람, 주지훈, 이학래, 김나라 학생도 함께 했다. <그린라이트>는 시그래프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중 데이타임 셀렉트(Daytime Selects) 상영작으로 선정되어 전세계 관객에게 선보였다. 미디어학과에 재학 중인 김예람, 이학래 학생이 제작팀을 대표해 8월 9일부터 13일까지 미국 LA에서 열린 '시그래프 2015'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 참석했다. 학부생들은 이번 작품 제작의 전 과정에 참여해왔다. <그린라이트> 제작팀은 올해 '시그래프 2015' 에 이어 내년 열리는 안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자그레브·히로시마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도 도전장을 낸다는 계획이다.



**GREEN LIGHT**

Ajou Quarterly Magazine 2015 Autumn Renewal Vol.1

**"나에게 기획의 그린라이트였다"** 김예람 / 미디어학과 3학년이 될 때 까지도 전공수업만 열심히 듣는 학생이었다. 2014년 3월부터 제작에 참여하면서 많은 기회가 왔다. 3D 애니메이션 전 과정을 이해하게 됐다. 자연스럽게 이 직종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봤다. 작업실에서 생활하면서 대학원 진학에 관심이 생겼고, 교수님과도 친밀해 졌다. 대학원에 진학, 3D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과 이를 활용한 교육 콘텐츠에 대해 연구해 볼 계획이다.

**"<그린라이트>는 '새우잡이배'였다"** 이학래 / 미디어학과 원양어선 같은 배를 타면 선원들은 오랜 기간 함께 생활하며, 중간에 내릴 수도 없다. 애니메이션 작품을 만드는 것이 비슷했다. 밤을 새고 주말과 방학을 반납해야 한다. '작품은 끝내는 게 아니라 멈추는 것'이라는 아티스트의 마음가짐을 배울 수 있었다. 미디어학과와 경우 전공이 세분화되어 '선택과 집중'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픽 및 영상 분야로의 진출을 마음 먹었다. 후배들도 자신이 좋아하면서 잘 하는 분야를 찾아 하루빨리 집중하기를 권한다. AJOUNSIGHT.

Global Alumni's Message

# NEW YORK

## 가슴 뛰는 일 좇다 보니 뉴욕에 닿았다

<Revealed Context>사<sup>현</sup>

**백우열** 동문/e-비즈니스학과 03학번



▲ 로봇 MIT Media Lab에 방문

“한국 사회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지 않은 것이 바로 미국에서 스타트업에 뛰어 들 수 있던 힘이다. 엘리트 코스를 따라가면 ‘정해진 길’로 가기 쉽다. 실패해도 도전하며 꿈에 다가갔다.”

아주대를 졸업하고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인턴 생활을 하던 백우열 동문은 권위적인 회사 분위기에 실망을 느끼고 곧바로 비행을 탔다. 카네기멜론대에서 컴퓨터공학 석사과정을 마쳤다.

머신러닝과 자연어 처리 전문 개발자로서 소프트웨어 기업 <M·Modal-Factset>에 취업했으나 곧 <리빌드콘텍스트>사로 옮겼다. 리빌드콘텍스트는 IBM,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소셜미디어 감정 분석(Sentiment analysis) 기술과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다.

백 동문의 현재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즐기치게 찾아온 길의 어느 지점이다. 스스로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을 찾아따라온 ‘지금’을 뛰고 있는 것이다.

“아주 시절이던, 유학생들이던 흥미가 세계 느껴지는 분야를 찾아다녔다. 모교에서 송하석 교수의 <형식논리학>과 정승민 교수의 <정수론>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카네기멜론에서는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수업 들었는데 게임처럼 느껴져 좋았다. 학문적으로 힘들었으나 학점 보다 관심 분야니까 몰두했다.”

흥미를 느껴 공부하고, 사유하는 경험들이 모여야 의미 있는 향로가 열릴 것이다. 백 동문은 스타트업에 관심 있는 아주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남들의 감동적 이야기들에 ‘좋아요’ 버튼만 누르고 있나? 내 생각의 ‘실행’ 버튼을 눌러야 한다. 창업이란 결국 ‘저마다의 이야기’다. 자신만의 언어와 철학이 필요한 거다. 삶은 어차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자신의 이야기가 중요한 거니까.”

현재 3명의 창업자와 일하고 있는 백 동문은 올해 안에 또다시 독립, 새 도전에 나서려 한다. 스타트업은 ‘돈 많이 벌겠다’ 보다 하고 싶은 것에 무게를 뒀야 한다고 백 동문이 다시 강조한다.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듣지 마라. 특히 달콤하거나, 권위 있는 말을 경계 하라. 자신만의 이야기를 자신이 만들어 가야만 한다.”

AJOLINSIGHT.

DREAM HIGH THINK BIG ACT NOW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 범죄자의 심리와 행동을 분석해 범죄가 어떤 시점이나 장소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예측하기도 한다. 포털에서 제공하는 검색어 자동 완성 기능 등이 머신러닝의 예다.

**CREATIVE for GREAT**  
**WE CAN**  
**THINK**  
**DIFFERENT**

# RESEARCH NEWS



\*사진의 일부는 참고자료용 이미지입니다.

## Two-photon fluorescent probes as new biomedical imaging agent

김한명 교수팀,  
화학분야 권위지 <CHEMICAL REVIEW>에 총설 게재

화학과 · 대학원 에너지시스템학과



김한명 교수가 '생체 영상에 적합한 이광자 형광프로브 (Small-molecule two-photon probes for bioimaging applications)' 라는 제목의 총설논문을 <CHEMICAL REVIEW>에 발표했다.

화학 관련 분야에서 피인용지수 1위에 해당하는 권위지 <에이칼 리뷰> 온라인판 게재. 미래창조과학부 지원 도약(전략)연구 사업으로 수행. 고대 화학과 조봉래 교수 공동교신저자로 참여.

'이광자 형광프로브'는 생체 내에 존재하는 여러 화학종을 실시간 · 정량적으로 검출, 정밀진단에 적용할 수 있는 차세대 영상소제다. 기존의 형광프로브는 에너지가 높은 단파장(자외선-가시광선)의 빛을 사용해 생체 시료에 손상이 생긴다는 단점이 있었다. 또 투과 깊이의 제한으로 조직의 표면만을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이에 비해 이광자 형광프로브는 에너지가 낮고 투과력이 좋은 적외선 영역의 빛을 영상에 사용한다. 덕분에 살아있는 조직의 내부를 세포 이하 수준의 3차원 고화질 영상으로 관찰할 수 있다.

김 교수는 "질병의 정밀 진단과 치료에 이광자 형광프로브를 응용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며 "다양한 영상소제와 함께 새로운 개념의 정밀 진단 플랫폼 개발에 주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 Silk nano-optical sensor

김성환 교수,  
실크 이용한 인체친화 바이오센서 개발

물리학과 · 대학원 에너지시스템학과



김성환 교수팀이 누에에서 얻은 실크를 이용해 인체 친화적인 나노 바이오 센서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이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기초연구사업(신진연구자, 선도연구센터)의 지원으로 수행.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이명재 석(박사과정 · 제1저자), 전현수 교수(공동저자)도 함께 참여. 나노분야 국제 학술지인 <나노 레티스> 온라인판 게재.

김 교수 팀이 개발한 나노 바이오 센서는 누에에서 얻은 실크를 사용해 인체 친화적인데다 검출 민감도 역시 높다. 이에 IT 기업들의 차세대 먹거리로 부상 중인 스마트 웨어블 분야에서도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팀은 누에고치로부터 액체 상태의 실크 단백질을 추출한 뒤 반도체 공정기술을 활용, 실크 필름에 금 나노구조가 부착된 나노광학소자를 구현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바이오 센서는 기존의 센서 보다 5~6배 높은 검출 민감도를 보였다.

김성환 교수는 "이번 연구는 섬유로만 알고 있던 실크 단백질이 인체 친화적 바이오 센서로 재탄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줬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고 말했다.



## The world's first electrically tunable graphene-optical fiber devices

염동일 교수,  
세계 최초 전기적 제어 가능한 그래핀-광섬유 소자 개발

물리학과 · 대학원 에너지시스템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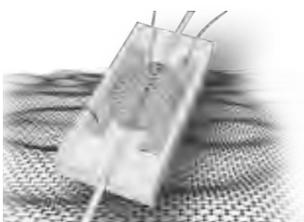
염동일 교수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전기적 제어가 가능한 그래핀-광섬유 소자를 개발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세계적인 과학저널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실렸다.

그래핀은 탄소원자가 벌집 모양으로 결합된 단일 원자층으로 높은 전도성과 투명성 그리고 유연성까지 갖추고 있어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등에 이용되는 '꿈의 신소재' 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단일층 그래핀의 경우 빛 흡수율이 2.3% 정도 밖에 되지 않아 고효율의 광반응 성능을 가진 광소자 및 광전소자를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연구팀은 기술적 한계로 결합이 어렵던 그래핀 전계효과트랜지스터(Field Effect Transistor · FET)와 광섬유를 결합하여 그래핀-광섬유 광전소자를 개발했다. 연구팀이 개발한 광전소자는 빛의 흡수율을 최대 90%까지 조절할 수 있는 고효율의 소자다. 연구팀은 이 광전소자를 통해 전기적으로 제어 가능한 극초단 광섬유 레이저를 만드는 데도 성공했다.

염동일 교수는 "이번에 개발한 그래핀-광섬유 광전소자는 최근 산업용 정밀 레이저 가공이나 레이저 무기 등을 구현하는데 쓰이는 광섬유 레이저에 직접 응용이 가능하다" 며 "향후 고효율의 그래핀 기반 광전소자나 광학소자를 구현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전망했다.



# RIP3 : Lost and found in cancer

**김유선 교수팀,**  
소량의 항암제로 암세포 사멸 새 치료법 개발  
의과대학 생화학교실



의과대학 생화학교실 김유선 교수 연구팀이 소량의 항암제 투여만으로 암세포 반응을 극대화해 사멸을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항암 치료 방법을 찾아냈다.

<아이자> 자매지인 <셀리서저> 온라인판 게재

김유선 교수 연구팀은 세포사멸 프로그램인 '네크로토시스(Necroptosis)' 를 관장하는 단백질(RIP3)을 활성화함으로써 **항암제 반응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한 것이다. RIP3는 네크로토시스 조절의 핵심 단백질로 세린 트레오닌 인산화 효소를 말한다.

암세포는 생명력이 강해 다량의 항암제 투여와 반복된 방사선 치료로 환자의 건강이 위협받는 경우가 많다. 김 교수 팀은 네크로토시스를 조절하는 RIP3가 암세포에서 현저히 감소한다는 점에 착안, 암세포에 탈메틸화제를 투여해 RIP3 발현력을 높였다.

연구팀은 이후 동물 실험에서 같은 방식으로 암세포 내 RIP3가 늘어나게 한 뒤 항암제를 투여했고 이 같은 과정을 밟지 않은 그룹에 비해 쥐의 종양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다. 유방암 환자의 암세포 조직을 대상으로 한 검사에서도 RIP3의 발현력이 정상보다 떨어져 있는 것을 파악했고, RIP3의 발현이 높은 환자일수록 상대적으로 생존율도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



# Day length measurement mechanism : how plants know when to flower

**송영훈 교수팀,**  
식물의 새로운 개화조절 경로 밝혀내  
생명과학과



송영훈 교수팀이 식물의 개화(開花)시기를 조절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데 성공했다. 개화의 산물이 곡식과 과일이라는 점에서 이번 연구 결과는 **개화시기 조절을 통해 작물의 수확량을 늘리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영훈 교수는 미국 워싱턴대학 및 경상대학교 연구진과 공동으로 모델 식물인 애기장대에서 개화시기를 조절하는 새 메커니즘을 규명했다. 관련 논문은 저명 학술지인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에 실렸다.

개화는 식물이 수정하여 씨앗 생산을 통해 자신의 유전정보를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종족보존' 을 위해 매우 중요한 단계다. 개화는 계절 변화와 긴밀한 관련을 가지는데 대부분의 생명체가 계절 변화에 따라 성장, 발달 그리고 생식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동을 할 수 없는 식물의 경우 그 자리에서 급격한 주위 환경의 변화에 대처해야하기 때문에 다가오는 계절을 예측하여 천적이 없고 강수량 및 기온 등이 자신에게 유리한 즉, 최대한 많은 양의 씨앗을 생산할 수 있는 적절한 계절을 선택해서 개화하도록 진화되어 왔다.

낮과 밤의 길이(광주기) 변화는 매년 같은 양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많은 생명체들이 낮과 밤의 길이를 측정하여 계절 변화를 인식하고 다가온 환경 변화에 대비한다. 식물의 개화 역시 광주기 변화에 반응하여 진행된다. 이러한 광주기적 개화에는 가시광선 영역 중 특정 영역대의 파장을 흡수하는 광수용체 단백질들의 역할이 핵심적이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가시광선 중 청색광이 애기장대의 개화를 촉진하고 이는 개화를 유도하는 전사인자인 CO 단백질(CONSTANS)이 청색광에 의해 활성화된 청색광수용체 FKF1에 의해 안정화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즉 FKF1이라는 물질이 CO 단백질의 양을 늘려 개화를 촉진한다는 설명이다. 송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또 다른 물질인 ZTL(ZEITLUPE)과 GI(GIGANTEA) 단백질이 CO 단백질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를 밝혀냈다. ZTL 단백질과 GI 단백질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단백질이지만 **CO 단백질과의 관계 및 역할을 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송영훈 교수는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로 개화시기가 달라지고 있어 작물 생산량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며 "이에 앞으로 식물의 개화시기 조절에 대한 연구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 Electromyographic analysis for rehabilitation of shoulder joint

**이두형 교수팀,**  
심부근육 활성화 측정 성공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아주대병원 스포츠의학센터 이두형 교수팀이 운동 중 심부근육의 활성도를 측정하는 데 성공, 운동선수의 근육 부상 예방과 재활운동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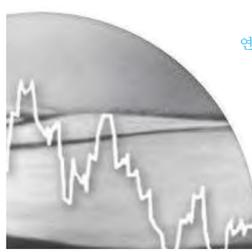
이두형 교수(의과대학 정형외과)와 정명철 교수(산업공학과)는 건강한 성인 15명을 대상으로 0.139mm 두께의 매우 가는 섬유 센서를 피부 내 깊은 곳에 위치한 회전근개 근육 세 곳에 삽입하고 다양한 어깨 운동 동작을 하게 한 뒤 어깨 관절 운동의 패턴을 분석해 냈다.

연구결과는 최근 유럽스포츠학회 공식 학술지 <무릎 수술 및 스포츠 손상 관련내시경(KSSTA, Knee Surgery Sports Traumatology Arthroscopy)>에 게재됐다.

스포츠 과학 영역에서 생체 근육 신호를 측정하는 일은 매우 근본적인 작업이나 그동안 관절에 가까이 위치한 근육 움직임은 측정할 수 없었다. 근육이나 신경마비가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병원에서 굵은 바늘을 이용해 근전도를 측정하긴 했으나, 이 방법은 스포츠 영역에서 사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반해 최근 미국과 일본에서는 극세 섬유 센서를 심부 근육에 삽입하여 스포츠 동작에서 심부 근육 활성도를 측정하는 데 성공했고, 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에서도 0.139mm 두께의 극세 섬유 센서를 이용해 심부 근육 활성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교수는 "근육의 표층만이 아닌 심부 근육까지 정확히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는 스포츠의학 연구와 관련, 특정 동작을 할 때 각 근육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나 피로도를 분석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 NEWS >>>

EVENT

## 정의화 국회의장, 아주강좌 강연



정의화 국회의장이 아주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년의 꿈이 나라의 미래를 바꾼다'라는 제목의 특강을 진행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6월4일 오후 4시30분부터 종합관 대강당에서 열린 아주강좌의 강연자로 나섰다. 아주강좌는 다산학부대학에서 주관하는 교양강의로 교내외 저명인사들이 강연자로 참여해 오고 있다.

공직에 몸 담았던 김동연 총장과의 인연을 소개하며 말씀을 연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겠지만 절대 좌절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 걸어라"며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다 보면 결국 성공에 이르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는 '죽음'에 대한 준비"라며 "죽음을 앞둔 순간 후회가 없도록 자신의 신념과 의지대로 살아가라"고 조언했다.



DREAMHIGH THINK BIG ACT NOW

EVENT

## 아주대-美 메릴랜드대, 약학 분야 맞손



아주대와 미국 메릴랜드대학 볼티모어 캠퍼스(University of Maryland Baltimore)가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교는 이번 협력 체결을 계기로 약학분야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5월30일 오후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MOU 체결식에서 김동연 총장과 제이 필만(Jay A. Peman) 메릴랜드대학 볼티모어 캠퍼스 총장은 MOU에 서명하고 이를 교환했다. 방한 중인 래리 호건(Larry Hogan) 메릴랜드 주지사 부부도 함께 자리했다.

메릴랜드대학 볼티모어 캠퍼스는 미국 보건 의료 및 제약 바이오 산업 인프라의 중심에 있는 대학으로 손꼽힌다. 아주대는 약학대학을 중심으로 메릴랜드대학과의 인프라 공유 및 교수·학생 교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E.T.C.

## 로스쿨, 제4회 변호사 시험 합격률 90% ... 전국 3위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제4회 변호사 시험에서 합격률 90.2%를 기록해 전국 25개 로스쿨 중 3위권의 성적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합격률은 74.7%로 조사됐다.

지난 4월 법무부는 제4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아주대 로스쿨은 초시 응시자 51명 가운데 46명이 합격, 90.2%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25개 로스쿨의 평균 합격률을 크게 웃도는 성적이다. 법무부는 초시 응시자 기준 전국 평균 합격률은 74.7%라고 밝혔다. 초시 응시자란 올해 처음 시험을 치른 경우를 말한다.

로스쿨에 따르면 이번 아주대 로스쿨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전국 3위권에 해당한다. 영남대가 98.44%의 합격률로 가장 높은 성적을 냈고 서울대와 아주대가 뒤를 이었다.



PEOPLE

## 'Ajou Great Turning' 위해 머리 맞댄 아주가족

아주대학교 구성원들이 학교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해 집중 토론회를 진행했다.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총 53번의 회의가 열렸고 김동연 총장 주도로 교수와 직원, 재학생이 참여했다. 아주 구성원들의 학교 발전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이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회의는 다양한 형태로 이어졌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단과대학별 브레인스토밍 회의를 개최, 국제화와 산학협력, 융복합 연구와 기초 학문 육성 등의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처장단과 기획팀장, 교무팀장 등이 참가한 실무 회의도 30차례 이상 개최됐다.



PEOPLE

## 아주대-아주대의료원, 네팔 돕기 성금 기부



아주대학교와 아주대학교의료원이 대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네팔을 돕기 위해 모금한 구호 성금 4,8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

이는 아주대학교와 아주대학교의료원 소속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모금을 통해 마련한 기금이다. 학교에서 모금한 1,940만원 가운데는 아주대 네팔 후원회가 기탁한 200만원도 포함되어 있다. 후원회는 2002년 사회봉사센터가 주축이 되어 네팔 후원을 위해 만들어진 교내 모임이다.

한편 아주대는 네팔 대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네팔 국적 유학생들을 위해 총장과의 간담회를 열고 피해 상황을 파악,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EVENT

## 호주 상원의장에게 명예 정치학 박사 학위 수여



아주대학교는 지난 7월3일 스티븐 페리 호주 상원의장에게 명예 정치학 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스티븐 페리 상원의장은 2005년부터 현 집권당인 자유당 소속 상원의원으로 활약했으며 상원 부의장을 거쳐 지난해 7월 상원의장이 됐다. 학교는 페리 상원의장이 한국-호주간 정치인 교류, 외교·국방·안보 협력, 경제·통상 투자협력, 문화 협력 등 양국의 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해 학위 수여를 결정했다.

김동연 총장은 "오늘 학위수여식을 통해 우리 학교는 스티븐 페리 상원의장을 아주가족으로 맞이하게 됐다"며 "앞으로 아태지역의 대표적 중견국인 우리나라와 호주의 협력기반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PEOPLE

### 안병민 교수, 대한금속재료학회 2015 신진학술상



안병민 교수(신소재공학과·대학원 에너지시스템학과)가 대한금속재료학회에서 수여하는 '신진학술상'을 수상했다. 대한금속재료학회 신진학술상은 금속 및 재료 분야에서 뛰어난 논문들을 다년간 발표하였거나 우수한 저서를 집필하여 금속 및 재료공학 발전에 높은 기여를 한 만 40세 미만의 신진 연구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학회는 지난 3월 13일 이사회 회의를 통해 올해 신진학술상 수상자를 최종 선정했다.

안병민 교수는 나노 기술을 이용한 구조용 금속재료의 고강도 경량화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통해 해당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안 교수는 2008년 서던캘리포니아대학(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2011년부터 아주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PEOPLE

### 서형탁 교수팀 '그래핀 촉매 다이오드 소자' 기술이전 성공



서형탁(신소재공학과·대학원 에너지시스템학과) 교수가 저전압 그래핀 수소 전극 기술을 기술이전하는 데 성공했다. 서 교수가 지난해 개발해 국내 특허를 출원한 '그래핀 촉매 다이오드 소자' 기술은 음이온을 이용해 저항을 조절하는 동시에 수소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에 수소를 이용한 에너지원 개발이나 화학센서 등 다양한 분야로의 활용이 모색되어 오던 중 최근 U-헬스케어 기업인(주)바이오닉스로의 기술이전에 성공했다.

서 교수는 "이 전극 기술은 휴대용 수소수 생성기의 전극 소재로 적용될 예정"이라며 "일본 학계를 중심으로 수소수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에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수소수 상품화가 활발해 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PEO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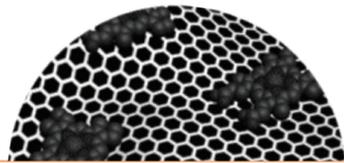
### 전자공학과 학부생들, 세계 최초로 반도체 트랜지스터 제작 성공



전자공학과 학부생들이 세계 최초로 MOSFET(반도체 트랜지스터) 제작에 성공했다. 지난해 교육부 CK(지방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에 선정된 전자공학과 융합전자특성화사업단이 지원한 '전자종합설계' 수업에서 30여명의 학부생들이 9개조로 나뉘어 각각 제작한 MOSFET이 성능 측정에 모두 성공한 것이다.

MOSFET 공정기술은 현대 반도체 기술의 주축임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장비와 130여개의 공정을 거쳐야 하는 등의 이유로 학부과정에서는 세계적으로 성공사례가 없었다. 융합전자특성화사업단은 CK사업 선정을 통해 장비 및 전문 인력 등 반도체 교육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게 되어 이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

## KIM+ 대한금속·재료학회



PEOPLE

### 김동윤 정보통신대학원장, 서울어코드 의장 선임



김동윤 정보통신대학원장이 지난 6월 21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서울어코드 총회에서 의장에 당선됐다. 임기는 2년이다. 서울어코드는 대학 내 컴퓨터정보기술 분야의 공학교육인증을 국가 간 상호 인정하는 국제 협의체로 지난 2008년 12월 한국 주도로 출범한 바 있다. 현재 한국,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대만, 홍콩 등 정회원 8개국과 아일랜드, 뉴질랜드, 필리핀 등 준회원 3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동윤 의장은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국방과학연구소를 거쳐 1991년부터 아주대 정보컴퓨터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PEOPLE

### 이정원 교수팀,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 학술대회 최우수논문상



전자공학과 이정원 교수와 이미연 연구교수, 전자공학과 석사재학중인 박예슬 학생의 논문이 지난 4월 숙명여대에서 열린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수상 논문은 '급성심근경색증 관련 의료 영상의 관상동맥 구조 기반 질병 연관 특징 추출'이란 제목이다.

박예슬 학생은 "급성심근경색증은 관상동맥의 상태를 파악해 골든타임 내 조치하는 것이 관건이지만 이를 위해 현재 활용되는 의료영상에는 의미 있는 정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며 "이번 연구에서는 영상에 담긴 정보들 가운데 의료적으로 의미 있는 것들만 추출, 통합해 직관적이고 효과적으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VENT

### 영문학과 선후배 한자리에... '영문인의 날'



영어영문학과 주최 <영문인의 날> 행사가 5월 16일 다산관에서 열렸다.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동문들이 참석해 후배들과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눴다.

행사는 선배와 후배들이 함께 하는 '진로 모색 박람회'와 '영문인의 날 기념식' 등으로 구성됐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영문인의 날>은 영어영문학과 구성원들의 교류와 재학생의 진로 모색을 위해 마련된 행사로 학부생과 졸업생 등 총 250여명이 참여했다.

'진로 모색 박람회'는 현직에 있는 선배들과 영어영문학과 재학생들 간의 대화로 진행됐다. ▲IT·광고·문화예술 ▲교육 서비스(교수, 교사, 교직원 등) ▲일반 서비스(금융, 호텔, 면세점 등) ▲유통(식음료, 제약, 패션, 물류 등) ▲제조(전자, 화학, 중공업 등) ▲공직·언론·변호사 ▲대학원 진학 총 7개의 부스에서 선후배의 만남이 이뤄졌다.





EVENT

### 2015 학과체험 진로박람회 생생한 학과 정보 전달

입학처 입학사정센터가 지난 5월 16일 <2015 학과체험 진로박람회>를 개최했다. 전공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 20개 학과 교수진이 직접 강사로 나서 생생한 학과 정보를 제공했다.

오전 9시부터 종합관과 율곡관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1200여명의 중·고교생과 학부모가 참석했다. 이 행사는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행사는 김동연 총장의 '유쾌한 반란' 특강으로 시작해 학과 소개, 전공 체험, 입시 Q&A 순으로 이어졌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아주대 재학생들과 함께 하는 학과 체험 시간도 마련되어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DREAM HIGH THINK BIG ACT N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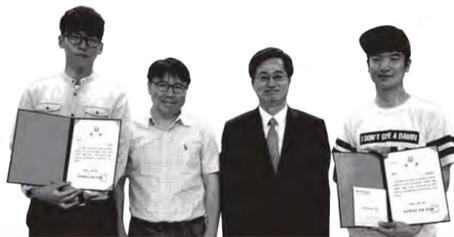
EVENT

### 2015 동아리·소학회 콘테스트

5월 26일 오후 율곡관 대강당에서 '2015 동아리·소학회 콘테스트' 시상식이 개최됐다. 동아리와 소학회 각 20개 팀이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콘테스트 대상의 영예는 동아리 부문 BEAT(지도교수 조계운)과 소학회 부문 A-FA(지도교수 전용호)에게 돌아갔다. 김동연 총장이 직접 상장과 부상을 전달했다. 대상팀에는 상금 80만원씩이 주어졌다.

동아리·소학회 콘테스트는 대학문화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팀의 활성화 정도와 창의성, 전문성, 진취성 등을 평가해 수상팀을 선정한다.



AWARD & SELECTION

### 미래창조과학부 '정보보호 특성화 대학' 으로 선정돼 사이버보안학과 신설

아주대가 '정보보호 특성화 대학' 으로 선정되어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은 6월 11일 오후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열렸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2015 정보보호 특성화 대학' 사업은 정보 보안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것으로 아주대와 고려대, 서울여대가 참여 대학으로 선정됐다.

'정보보호 특성화 대학' 사업은 기존의 이론 중심 교육에서 탈피해 기업과 연계한 실무형 교육을 통해 보안 분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번에 첫 참여 대학을 선정했다.

사업 참가자로 선정된 3개 학교는 앞으로 4년간 각각 연간 5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아주대는 정보컴퓨터공학과 객진 교수가 사업 책임자로서 총괄지휘를 맡았다. 학교는 정보통신대학 소프트웨어 보안전공을 사이버보안학과로 확대 개편해 내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AWARD & SELECTION

### 곽명숙 김혜숙 이교범 교수 저서, 학술원 2015 우수도서 선정

곽명숙(국어국문학과) 교수, 김혜숙(심리학과) 교수, 이교범(전자공학) 교수의 저서가 대한민국학술원 '2015년도 우수 학술도서'에 선정됐다.

이번에 우수 학술도서에 선정된 곽명숙 교수의 책은 <한국 근대사의 흐름과 고원>, 김혜숙 교수의 책은 <다수 집단과 소수 집단의 심리>다. 이교범 교수의 저서는 <풍력발전 시스템의 전력전자기술 설계 및 제어>다.

대한민국학술원은 매년 인문학, 사회과학, 한국학, 자연과학 분야의 우수 학술 도서 300여권을 선정해 대학과 연구소 등에 보급하고 있다.



AWARD & SELECTION

### 축구부, 대학운동부 지원사업 선정

아주대 축구부가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가 지원하는 '2015 대학운동부 지원사업'에 선정돼 6,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사업비를 지원받은 대학들 중 단일 종목으로는 최대 규모다.

이 사업은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한다. 전국 80여 개 대학으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에서 개발한 대학운동부 평가지표를 활용, 대학의 운동부 지원 현황과 평가 검증을 통해 대상대학을 선정했다. 지원비는 앞으로 훈련비와, 훈련용품 구입비 그리고 대회 출전비 등으로 사용된다.



### 아주가 국내 최고!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 Undergraduate Research Program



3-4학년 학생들 중심 참여. 학부생들이 직접 팀을 결성하고 연구주제를 잡아 데이터 분석과 해석, 논문 작성 등 연구의 전 과정을 지도교수와 한 학기 이상 수행, 경험하는 프로그램이다. 개막 첫해인 2012년 425명, 2013년 407명, 2014년에 425명이 참여했다.

타 대학에서도 학부생 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나 연구비 지원, 발표회, 시상, 참여 학생수 등에서 압도적 1위이다.



AWARD & SELECTION

### 국토부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술개발 연구단' 선정

아주대가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저비용·고효율의 노후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기술 개발 및 실증 연구단'의 주관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 연구에는 신동우 교수를 비롯한 건축학과 교수진(전유창, 김성욱, 김선숙, 조봉호, 김경래, 차희성)이 참여한다. 연구 기간은 올 8월부터 5년8개월, 총 연구비는 192억원에 달한다.

'저비용·고효율의 노후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기술 개발 및 실증' 연구는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술을 적극 도입해 주거성능을 복원하고 재건축으로 인한 단지 파괴와 자원 낭비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이번 연구단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수직증축 구조시스템 ▲제도개선 및 금융지원 방안 등까지 포괄해 다루게 된다.



AWARD & SELECTION

### 직원 사기 진작 위해 '이달의 부서' 선정

김동연 총장이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동기 부여를 위해 우수 부서를 선정하고 격려했다. '이달의 부서'로는 5월 교수학습개발센터(CTL), 6월 LINC사업팀, 7월 대학원 교학팀이 선정됐다. 김 총장은 선정된 부서 직원들에게 소정의 상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첫 '이달의 부서'로 선정된 교수학습개발센터는 교수·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며 이러닝(e-learning) 콘텐츠를 제작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사업(ACE)과 수도권 대학 특성화사업(CX)을 비롯한 각종 대외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공을 인정받아 격려부서로 뽑혔다.

LINC사업팀은 최근 한국연구재단이 발표한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3차년도(2014) 연차평가 결과에서 기술혁신형 분야 우수 등급을 받는 데 기여했다. 대학원 교학팀은 지난 7월 개최된 스티븐 패리(Stephen Parry) 호주 상원의장 명예박사학위 수여식을 성공적으로 진행함에 따라 이달의 우수 부서로 선정됐다. 대학원 교학팀은 아주대에서 11년 만에 개최된 명예박사학위 수여식을 면밀하게 준비, 참석한 아주 구성원들에게 한 마음으로 함께 일하면 해낼 수 있다는 자부심과 감동을 안겨줬다.



AWARD & SELECTION

###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 융합분야(CRC)' 선정

아주대 의료인문융합콘텐츠사업단(단장 박정식)이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2015년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 융합분야(CRC)'에 선정됐다.

의료인문융합콘텐츠사업단은 인문대학, 의과대학, 공과대학, 정보통신대학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 선정으로 최장 7년 동안 총 140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사업단의 연구주제는 '고령화 사회의 정신건강을 위한 디지털 품앗이'이다. 고령화 사회가 당면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인문학적 통찰을 바탕으로 의학, 공학 기술을 융합해 해결책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의료인문 융합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디지털휴머니티 융합학과를 신설하고 인문대학, 의과대학, 공과대학, 정보통신대학 등이 협동교육과정을 개설하여 내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PEOPLE

### 최상돈 교수, 생화학분자생물학회 2015 청산상



최상돈 교수(생명과학과·대학원 분자과학기술학과)가 생화학분자생물학회가 수여하는 '2015 청산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학회는 매년 분자생물학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업적을 가진 국내외 과학자 가운데 학회 공식 학술지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1인을 선정해 이상을 주고 있다.

최상돈 교수는 톨 유사수용체(Toll-like receptor, TLR)의 제어 경로에 대해 다수의 훌륭한 논문을 발표, TLR 신호의 활성화 및 규제 방법을 발견한 공로를 인정받아 청산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최 교수가 생화학분자생물학회 공식 학술지인 EMM(Experimental & Molecular Medicine)에 게재한 논문의 인용도가 높다는 점도 반영됐다.

TLR은 미생물을 비롯한 각종 해로운 물질이 몸에 침입하는 경우 면역 활성화 및 염증분자 유도를 통해 우리 몸을 보호하는 선천면역 반응의 중요한 구성 요소다. TLR 신호에 장애가 생기면 류마티스성 관절염과 자가면역 질환 및 염증성 질환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E.T.C.

### LINC사업단, 연차평가 '우수' 등급... 올해 사업비 49.5억원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단이 한국연구재단이 실시한 연차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에 올해에는 지난해 대비 10억5,000만원이 증가한 49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배정받게 됐다.

한국연구재단은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3차년도(2014) 연차평가 결과 아주대학교가 기술혁신형 분야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연구재단은 매년 각 대학의 사업 진행과 성과를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지급하고 있다. 아주대는 기술혁신형 분야 참여 대학 중 5위의 성적을 기록했다. 이에 평가결과를 반영해 올해 총 49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교육부가 산업체의 수요에 부합하도록 대학교육의 체질을 개선해 대학과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마련한 LINC 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됐다.

미국 전기전자공학회(IEEE) 출판 세계적 학술지 <Transactions on Electron Devices>에 '청색·녹색 발광 다이오드 전류성분의 정량적 비교 분석(Current Components and Their Temperature Dependence of Green and Blue Light-Emitting Diodes: A Quantitative Comparison)'이라는 제목의 논문 게재 등 질적으로도 발군의 성과가 나온다.

2012 425  
2013 407  
2014 425





E.T.C.

### 인문대 디지털 휴머니티 사업단, 中 북경사범대와 MOU

인문대학 특성화사업단인 '디지털 휴머니티 사업단(단장 정경훈 교수)'이 중국 북경사범대 소속 경사문화창의산업연구원(京師文化創意產業研究院)과 MOU를 체결하고 상호협력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지난 7월 3일 북경사범대 경사문화창의산업연구원에서 열린 MOU 체결식에는 이상신 교수(국어국문학과), 연구 교수(문화콘텐츠학과)가 참석했다.

북경사범대 경사문화창의산업연구원은 북경사범대학교와 북경시 선전부가 함께 설립한 산-학-연 일체화 기관이다. 지난 2008년 9월 설립되어, 북경시의 문화산업 육성 정책과 교육을 지원하는 싱크탱크로 북경시로부터 연구지원을 받고 있다. 이번 MOU를 계기로 인문대 '디지털 휴머니티 사업단' 뿐 아니라 인문대 소속 문화콘텐츠학과와의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휴머니티 사업단은 지난해 교육부가 추진하는 대학 특성화사업(CK사업, University for Creative Korea)에 선정된 아주대 6개 특성화사업단 가운데 하나다. 인문대 문화콘텐츠학과와 국어국문학과가 주축이 되어 인문학과 문화콘텐츠의 선순환적 융합교육을 위해 힘쓰고 있다.



E.T.C.

### 법학전문대학원-육군 제3군 사령부 법무참모부 MOU

법학전문대학원과 육군 제3군 사령부 법무참모부가 지난 7월 10일 법 관련 연구 및 교육의 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협약은 ▲법률 연구자료 및 지식의 상호교류 ▲재학생의 군사법 실무경험 기회 제공 ▲양기관의 요청분야에 대한 상호 강의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식에서 김진기 법무참모는 "아주대학교 리걸클리닉 법률상담을 통해 군 인권이 더욱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주도한 윤태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법률상담 이외에도 교육이나 연구 등에서 다양한 협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DONATION

### 김중권 동문, 외동딸 故 김수정씨 뜻 따라 장학금 3억원 기부

아주대 1회 졸업생 김중권 동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딸을 기리기 위해 모교에 3억원의 장학금을 기부하기로 했다. 학교는 이 기금을 '김수정 장학금'으로 명명했다.

첫 번째 '김수정 장학금' 전달식은 4월 3일 율곡관 제1회의실에서 열렸다. 장학금은 림프암 전공을 희망하는 의과대학 학생 2명과 학군단 학생 1명,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7명에게 돌아갔다. 전자공학과 1회 졸업생인 김중권 동문은 지난해 10월 림프암으로 세상을 떠난 외동딸 김수정 양의 뜻에 따라 기부를 결정했다.

김중권 동문은 "1년 여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딸의 유지에 따라 기부를 하게 됐다"며 "이 장학금을 받은 후배들이 열심히 공부해 훌륭한 인재로 커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DREAMHIGH THINK BIG ACT NOW

DONATION

### '이종철 장학금' 첫 장학증서 수여식 열려

'이종철 장학금' 1기 장학증서 수여식이 4월 21일 율곡관 제1회의실에서 열렸다. 이종철 동성금속 대표는 직접 4명의 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이종철 대표는 지난해 10월 1억원의 장학금을 기부했고 학교는 매 학기 당 1,000만원씩 장학금을 집행하고 있다. 첫 번째 '이종철 장학금'은 약학과와 신소재공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4명에게 돌아갔다.

이종철 대표는 아주대 경영대학원 최고위과정 43기 졸업생으로 그동안 아경장학재단 이사로 재직하며 지속적으로 기부활동을 펼쳐 왔다. 아경장학재단은 경영대학원 동문들이 설립한 장학재단으로 아주대학교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DONATION

### 축구부 후원금 기부자에 감사패 전달

4월 24일 율곡관 총장실에서 축구부 후원금 기부자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이 열렸다. 축구부 이지민 선수의 부친 이효식 씨와 축구부 학부모회, 이삼구 축구부 후원회장이 축구부 후원금을 쾌척했다.

아주대 축구부 출신으로 올해 자유계약을 통해 K리그 전남드래곤즈에 입단한 이지민 선수의 부친 이효식 씨가 3,000만원을 기부했고 축구부 학부모회와 이삼구 후원회장이 각각 1,000만원씩을 기부했다. 축구부 학부모회가 쾌척한 기부금은 축구부 선수 38명의 학부모들이 모금을 통해 마련했다.



DONATION

### 신문법 LG전자 사장, 후배위해 기부

김동연 총장이 5월 4일 신문법 LG전자 중국법인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신문법 사장은 지난 2013년 학교를 방문해 기부를 약속한 뒤, 후배들을 위해 써달라며 2014년 5월과 2015년 4월에 각각 2,0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기부했다.

신문법 사장은 아주대 기계공학과 출신(73학번)으로 2012년 LG전자 중국법인장 사장에 선임됐다. 신 사장은 1986년 금성사에 입사한 뒤 2005년 LG전자 인도법인 부사장, 2007년 서남아지역대표를 역임한 LG전자 내 대표적인 해외마케팅 전문가다.





### 대우장학 장학증서 전달식 열려... 단과대 수석에 장학금

2015학년도 1학기 대우장학 장학증서 전달식이 4월7일 율곡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렸다. 대우장학은 단과대학 학년별 수석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이다.

이날 행사에는 추호석 대우장학재단 이사장과 이사진, 장학생들이 참석했다. 김동연 총장과 각 단과대학 학장과 대학본부 처장을 비롯한 교직원들도 함께 자리했다.

조재형 학생처장의 대우장학 현황보고를 시작으로 추호석 이사장의 장학증서 전달, 장학생 선서, 장학생 대표의 감사편지 낭독 등이 이어졌다.

추호석 이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오늘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학업을 위한 그 열정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며 "장학생들이 오늘 받은 장학금 그 이상의 것을 후배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훌륭한 인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아경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5월15일 율곡관 영상회의실에서 2015학년도 1학기 '아경장학 장학증서 수여식' 이 열렸다. 아경장학재단은 아주대 경영대학원 총동문회가 2007년 설립한 장학재단이다.

이날 장학증서 수여식에는 21명의 장학생과 김형균 아경장학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아경장학재단 관계자, 김동연 총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가 참석했다.

행사는 ▲아경장학재단 경과보고 ▲장학증서 수여 ▲김형균 아경장학재단 이사장 격려사 ▲김동연 총장 축사 순으로 이어졌다. 양기운 학생은 장학생 대표로 감사의 글을 낭독했다. 이번 학기 아경장학금을 받게 된 학생은 이재연(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을 비롯해 총 21명이다.



### 조용태 동문·김인에 前 대학원 교학팀장에 감사패 전달

4월8일 율곡관 2층 총장실에서 조용태 경영대학원 동문과 김인에 전 아주대 대학원 교학팀장에 대한 기부자 감사패 전달식이 열렸다. 조용태 동문과 김인에 전 팀장은 각 1,000만원씩을 기부했다.

조용태 동문은 ㈜스텝스 이사로 재직 중이며 아주대 경영대학원 최고위과정과 석사과정을 마쳤다. 조 동문은 경영대학원 장학금으로 1,000만원을 기부했다.

김인에 전 대학원 교학팀장은 중앙도서관 발전 기금으로 1,000만원을 기부했다. 34년 간 아주대 직원으로 재직해온 김 팀장은 지난 2월 퇴직했다. 김 팀장은 자유기금과 1-1-1 캠페인을 통해서도 400만원 상당을 기부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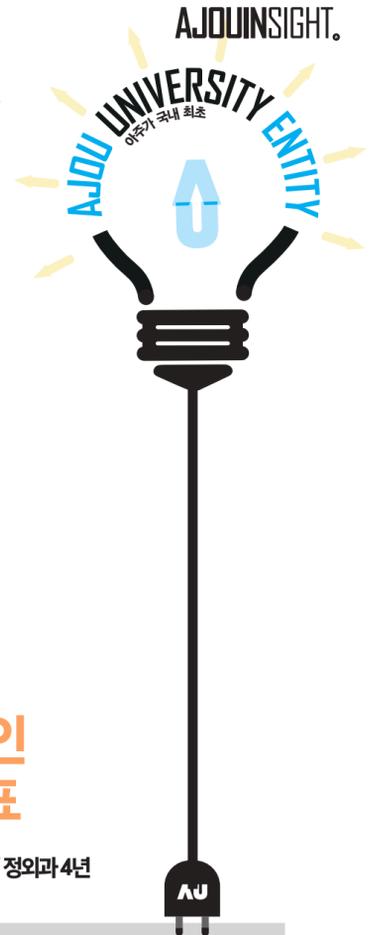


### 아주대학교병원, 국민안심병원 지정

아주대학교병원이 지난 6월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 받아 메르스 감염 방지에 힘쓰고 있다. 국민안심병원이란 병원을 통한 메르스 감염을 우려하는 일반 환자를 위해 일반 환자와 호흡기질환자를 분리 진료하여 보다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말한다.

국민안심병원병원을 찾은 호흡기 질환자는 외래나 응급실 대신 별도의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고, 입원 시에는 1인실로 입원해야 한다. 중환자실도 폐렴 환자의 경우 메르스 유전자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입실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아주대학교병원은 병원 입구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호흡기 질환자와 일반 환자를 분리하여 진료하고 있다. 병원 입구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 병원 출입자를 대상으로 열감별을 실시, 체온이 37.5도 이상일 경우 병원 내 진입을 통제하고 선별진료소에서 선제적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 아주가 국내 최초 국내 첫 외국인 기숙사생 대표

아폴라비아누 / 정외과 4년 Afolabi Aanoulwapo Okiki

대한민국에서 1만 1,900km 떨어져 있는 나이지리아 출신. 이 나라에서 단 1명만 뽑는 한국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뽑혀 2011년부터 아주대서 유학 중. 기숙사 대표 선거에서 89%의 놀라운 득표율로 선발. 한국 학생과 외국인 유학생 사이의 교류가 아쉬워 출마했다. 1-1 매칭 언어 교육 프로그램 등 대표로서의 업적도 호평 받는 중. 유학 마치면 국제 변호사가 되어 교육의 희망으로 성장하는 고국, 평화의 아프리카를 위한 일을 하는 것이 꿈이다.

11,900 km 89% 1 only





MEDICAL CENTER

### 아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신축

아주대학교병원이 지난 5월 장례식장 준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아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은 1994년 병원 개원과 함께 개소하여 친절하고 투명한 운영으로 지역사회의 장례문화를 선도해 왔다. 시설 노후화로 20여 년 만에 건물을 신축하게 됐다.

새 장례식장은 병원 동측 응급센터 옆에 위치해 있고, 지난해 2월 착공하여 약 15개월간 공사를 거쳐 오픈했다. 연면적은 6,078㎡(1,838평)이고 지상 3층, 지하 2층 규모에 빈소 12실과 상주실을 갖추고 있다. 빈소는 170, 140, 100, 80평 각 1실과, 70평 2실, 50평 3실, 40평 2실, 35평 1실로 구성되었으며 빈소의 넓이에 따라 상주실 외에 가족실, 접견실, 접견대기실, 접객실 등이 있다.

그밖에 120석 규모의 영결식장, 2개의 입관실, 참관실, 4개의 독립된 숙소, 상담실, 장례용품 전시장, 예복실이 있고 이용객을 위한 휴게실, 편의점, 커피숍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다.



MEDICAL CENTER

### 아주대학교병원, 로봇수술 3000건 달성

아주대병원이 로봇수술 3,000건 돌파를 기념해 6월 2일 아주대병원 별관 소강당1에서 '아주대병원 로봇수술 3,000례 기념식'을 개최했다.

병원은 2013년 12월에 로봇수술기 다빈치Si를 도입하여 현재 2대의 로봇수술기를 가동하고 있다.

로봇수술을 받은 환자는 대부분 수술 후 회복수술에 비해 입원 또는 회복기간이 짧고 흉터가 작아 만족도가 높았고, 수술자들도 무리 없이 로봇수술을 시행하고 있어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이고 있다.



MEDICAL CENTER

### 호스피스 완화의료 독립병동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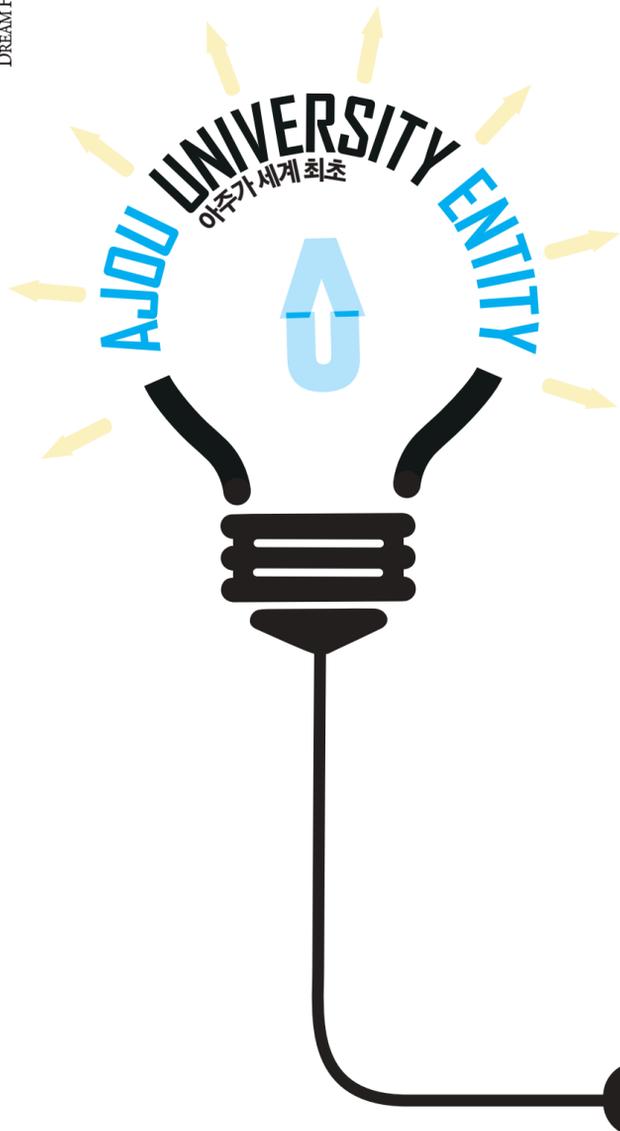
아주대학교병원이 지난 7월 15일부터 말기 암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독립병동을 운영한다.

완화의료 병동은 병원 10층에 위치해 있으며 1인실 1실, 2인실 3실, 4인실 1실 총 11개 병상을 운영한다. 말기 암환자와 가족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가족실, 상담실, 임종실, 목욕실 등의 시설도 마련했다.

완화의료병동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성직자 등으로 구성된 호스피스 완화의료팀이 중심이 되며, 이들은 암 투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안·우울·무기력감·두려움·섬망 등 정서적 측면, 통증·보행 장애·식생활의 어려움 등 신체적 측면, 사회경제적 측면을 평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DREAMHIGH THINK BIG ACT N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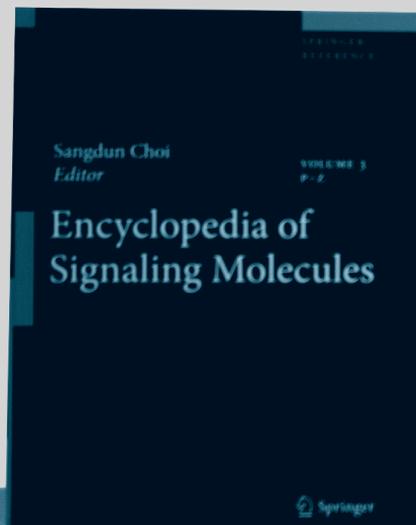


### 아주가 세계 최초 세계 첫 유전자 백과사전 최상돈 교수/생명과학과·대학원 분자과학기술학과

세계 최초 유전자 백과사전 출간. 25년간 관련 분야를 공부하고 연구하던 최상돈 교수가 25년 간 아쉬웠던 “매번 실험에 관계되는 유전자를 따로따로 공부하는 손실”을 없애기로 작정. 전세계 이 분야 대기급 전문가들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내 취합, 작업했다. 꼬박 4년. 그만 둘까도 “여러 번 작심” 했지만 매달렸다.

결국 전세계 과학자 800여명의 동참을 이끌어 내며 완성. ‘신호전달분자 대백과사전(Encyclopedia of Signaling Molecules)’이라 명명됐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2만3,000여개의 유전자가운데 생명현상 유지에 관련된 주요 유전자 4,000개에 대한 유전자 정보가 총망라 되어있다. 그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던 유전자 명칭을 통합해 정리했고, 발견된 역사적 배경,

25 years  
800 scientists  
4,000 molecules  
8,000 molecules





MEDICAL CENTER

###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개관 1주년 기념식

아주대학교의료원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가 개관 1주년을 맞아 4월 28일 센터 대강당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행사는 염태영 수원시장, 이기우 경기도사회통합부지사를 비롯한 환경부, 경기도 관계자와 유희석 아주대학교의료원장, 박해심 첨단의학연구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음악회, 공개강좌, 인형극, 피부검진, 저알레르기 식품 체험, 재활용 소품만들기, 아토피 피부염 인형극, 사진전 등이 진행됐다.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는 지난해 4월 경기도와 수원시가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150억원을 들여 건립했다. 아주대학교의료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아주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이수영 교수가 센터장을 맡고 있다.



MEDICAL CENTER

### 아주대학교의료원- kt wiz 야구단, 마케팅·의료지원 업무협약

아주대학교의료원(의료원장 유희석)과 kt wiz 야구단(대표이사 김영수)이 4월 21일 오후 6시 수원 케이티 위즈 파크에서 지역사회와 환자를 위한 공동 마케팅 및 의료지원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kt wiz 대 SK 와이번스 경기에 앞서 진행됐으며, 유희석 아주대학교의료원장, 탁승제 아주대학교병원장 그리고 kt sports 김영수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시구는 양기관의 협약을 기념하여 유희석 아주대의료원장이 맡았다.

협약에 따라 아주대학교의료원은 kt wiz 프로야구단 소속 선수의 부상 치료와 예방을 위한 검사나 강의 등을 지원하고, kt wiz는 환자를 위한 사회공헌활동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외에도 양사는 각사가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다양한 공동 마케팅을 펼칠 예정이다.



MEDICAL CENTER

### 아주대학교병원- 경기도수원월드컵재단, 사회공헌 및 나눔문화 확산 위한 MOU

아주대학교병원은 지난 6월 21일 경기도 수원월드컵경기장 관리재단(사무총장 한규택)과 공동마케팅 및 지역사회 나눔실천 활동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아주대학교병원은 경기도 수원월드컵경기장 관리재단이 주최하는 '빅버드 희망나눔 어울림 그린 장터' 행사를 후원하며, 재단의 각종 행사 시 응급차량 및 의료지원을 하게 된다. 관리재단은 아주대학교병원 환자 치료비 지원을 위한 나눔 장터에 기부금을 전달하며, 재활 체육활동을 지원한다.



MEDICAL CENTER

###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생-수원시 어르신 마음맺음 사업 결연식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생-수원시 어르신 마음맺음 사업 결연식이 지난 3월 24일 아주대학교병원 별관 대강당 로비에서 열렸다. 올해로 4회를 맞이한 마음맺음 사업 결연식에는 주일로 의과대학장, 정연훈 학생부학장, 노재성 정신건강의학과 주임교수, 홍창형 수원시노인정신건강센터장, 박정애 영통구보건소장, 의과대학 신입생 33명, 결연노인 23명 등이 참석했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생-수원시 어르신 마음맺음 사업은 의과대학생이 지역사회 노인과 일대일 결연을 맺어 지역 어르신에게는 의학적·정서적 도움을 주고, 학생에게는 의사-환자간 의사소통과 예비의사의 기본품성을 익힐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학생이 매달 한 번 이상 가정방문과 전화연락을 통해 어르신의 건강을 보살피고 상황에 따라 함께 식사하기, 말벗 되어 드리기, 신체질환이나 복용약물에 대한 설명 및 지식 제공하기 등을 진행하고 있다.



MEDICAL CENTER

### 간호대학, 국가보훈대상자 건강관리 재능기부

아주대학교 간호대학(학장 유문숙)이 지난 3월 27일 수원보훈지청 사회의실에서 수원보훈지청(지청장이제익)과 '나라사랑 정신 함양 및 재능기부 활동' 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 체결을 기반으로 아주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혈압·혈당 확인 등의 건강관리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날 유문숙 학장은 "국가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보훈사업에 우리 대학 학생들이 참여하게 되어 뜻깊다" 고 하며 "앞으로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질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 고 밝혔다.



단백질의 메커니즘, 질병과 연계된 기능적 설명, 미래 연구를 위한 전망까지 상세히 기술했다. 독자의 이해를 돕는 많은 그림과 표를 사용해 유용성을 높였다. 총 2,150여 페이지, 3권. 세계 최대의 학술 전문 출판사 미국 스프링거(Springer)를 통해 온·오프라인 동시 출판. 2017년 유전자 백과사전 제2판 예정. 총 6권, 8,000여개 유전자 정보수록 계획.

Sangdun Choi Editor  
Encyclopedia Signaling Mol.

Sangdun Choi Editor  
Encyclopedia of Signaling Molecules

Springer

MEDICAL CENTER

### 아주대학교병원- 중국 연변 제2인민병원, 검진센터 위탁운영계약 체결

아주대학교의료원이 중국 길림성 연변 제2인민병원에 '한국아주대학교병원 건강증진센터'를 연다. 아주대학교병원 개원 이후 첫 해외 진출이다.

지난 5월 21일 아주대학교의료원과 중국 연변 제2인민병원은 중국 연변호텔 1층 회의실에서 한국아주대학교병원 건강증진센터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라 아주대학교의료원은 향후 10년간 한국아주대학교병원 건강증진센터에 의료와 관리 인력을 파견하고 아주대학교병원의 책임 아래 위탁운영을 맡는다. 연변 제2인민병원은 건강검진에 필요한 인력, 시설장비는 물론 한국에서 파견한 의료인의 신변 보장과 인건비, 숙소 등을 제공하게 되며 아주대학교병원에 명의 사용료 명목으로 매년 2억원을,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매년 검진이익의 5%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국내에서 해외 병원에 의료 또는 경영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 사례는 많으나 이번 계약처럼 국내 병원이 직접 의료와 관리인력을 파견하여 운영하고 운영에 대한 수익금을 배분하는 방식은 극히 드물다.

해외 병원 진출을 모색하는 국내 여러 병원은 현지 정부의 비협조적 태도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계약은 연변조선족자치주 정부의 적극적 협조가 있어 가능했다.

아주대학교병원은 건강검진을 통해 만성질환과 신체기능의 문제점을 찾아 개인별 맞춤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연령별, 관심질환별, 증상별, 해독 및 기능, 가족력 등 세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만 2만여 명이 건강검진을 받았다.

유희석 아주대학교의료원장은 "아주대학교병원이 5년간 연변 제2인민병원과 우의를 쌓아왔고 이번 계약을 통해 100년 이상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변 제2인민병원은 300병상에 연간 외래환자 20만명을 진료하는 종합병원이다. 2011년부터 최근까지 이 병원의 의사 3명, 간호사 5명이 아주대학교병원에서 단기연수를 받았다.

PEOPLE

### 경영학과 이길영, UNAI 주최 에세이 대회 입상

이길영 학생(경영학과 4학년)이 ELS와 UN 아카데미 임팩트(United Nations Academic Impact, UNAI)가 주최하는 <수많은 언어, 하나의 세계(Many Languages, One World)> 외국어 에세이 부문에서 입상했다.

이길영 학생은 중국어 에세이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회는 UN 공용어인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부문으로 나뉘어 치러진다. 130개국 3,500여명의 참가자 가운데 70명만이 수상했다. 에세이는 '2015년 이후 글로벌 개발 의제'를 주제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었고 이길영 학생은 'Ensure healthy lives and promote well-being for all at all ages'라는 주제의 에세이로 중국어 부문 9명의 수상자 가운데 하나로 선정됐다.

수상자들은 지난 7월 20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 아델피 대학에서 열린 세계 청년 포럼에 초청됐다. 수상한 에세이를 UN 본부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됐다.

PEOPLE

### 김혜선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장, 녹조근정훈장 받아

김혜선(생명과학과) 교수가 양성평등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녹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2015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고 김혜선 교수를 비롯한 공로자들에게 훈장과 포장을 시상했다.

김혜선 교수는 아주대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센터장으로서 체계적인 여학생 커리어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운영해왔다. 더불어 지역사회 여성 리더들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각종 리더십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데 앞장서 여성들의 의식 제고와 사회진출을 원활히 하는데 기여해왔다.

PEOPLE

### 총장-학생·직원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

김동연 총장이 올 1학기 다양한 문화행사를 마련해 학생·직원들을 초청했다. 지난 4월 찰스 헤이 영국 대사와 조광순(영어영문학과) 교수, 학생들과 명동예술극장에서 '리어왕' 연극을 관람한 것을 시작으로 <푸르른 날에>, <난타> 공연을 학생 및 교직원과 함께 했다.

5월 30일 남산예술센터에서 진행된 연극 <푸르른 날에>에는 사전 신청을 받아 초청된 학생과 직원 45명이 함께 했다. 6월 2일 저녁 <난타> 공연에는 김동연 총장 내외, 영국 대사 내외, 신의섭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들이 함께 했다.

DREAM HIGH THINK BIG ACT NOW

## Brown Bag Meeting

총장-학생의 대화 브라운백미팅

김동연 총장이 샌드위치나 햄버거로 학생들과 직접 만났다. 봄 학기에만 7회, 매월 첫 번째·세 번째·수요일 오후 4시 회의실에서 진행됐고, 학생들은 학교 홈페이지로 신청, 선착순으로 참여했다. 대화의 주제는 따로 정하지 않았다. 학생들이 먼저 던지는 질문에 따라왔다. 학교에 대한 건의사항부터 진로에 대한 고민과 조언, 책과 영화 이야기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고갔다. 2학기 브라운백 미팅은 매주 둘째·넷째 화요일에 열린다. 첫 미팅은 9월 8일.

"참여한 학우들에게서 학교 사랑의 마음이 느껴진다. 지금 시대에는 더욱 이런 '함께하기'가 아주대학교의 미래를 밝힌다고 믿는다." -원홍식/정치외교학과 2학년  
"총장이 때로는 아버지처럼, 때로는 사촌형처럼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경청하는 모습이 감동적이다. 사람 대 사람으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한 방법'을 체감했다." -한재현/영어영문학과 3학년

"스스로 내리는 결정'에 대한 대화가 좋았다. 원가의 선택에서 결과나 배분은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인생 전체를 두고 봤을 때는 그게 잘못된 일이라 장담할 수 없다"는 총장의 강조를 다시 새기게 된다." -이해인/사회학과 3학년

"다양한 전공의 학우들이 각자 처한 문제나 분야에 대해 소통하는 넓은 장이었다. 더 다양한 주제로 더 많은 아주인들의 대화가 오가길 기대한다." -곽윤정/영어영문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흔히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 한다. 경영과 소통의 장에 다녀오니 '아주인'이라는 자부심까지 느껴졌다." -김은선/경영학과 3학년



책 읽는 즐거움 -  
**총장 Book Club**

첫 만남 10월 6일 정오  
아주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신청  
www.ajou.ac.kr

브라운백미팅, 소수 인원이 자유롭게 점심식사를 함께 하며 대화하는 시간을 의미 하며 보통 점심으로 제공 되는 샌드위치나 샐러드 등의 봉투가 감색이라는 데서 유래한 말이다.





어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것이 유쾌한 반란입니다



**AU**  
1973

아주대학교가 유쾌한 반란을 시작합니다  
**DREAM HIGH THINK BIG ACT NOW**  
 아주대학교 계간 소식지 2015 가을호  
 AJOU UNIVERSITY



AJOU UNIVERSITY QUARTERLY MAGAZINE 2015 09 10 11 RENEWAL Vol.1

# AJOUINSIGHT.

<아주인사이트> 2015(4348) 가을호. 전 '아주사람들'과 함께 통권 13호.